

차자표기법 ‘역상불역하(譯上不譯下)’의 생성 과정과 생성의 주체

백두현*

- I. 연구 목적
- II. 훈독법의 발달과 역상불역하의 생성
- III. 역상불역하의 생성 주체와 배경
- IV. 요약과 해석

<국문초록>

중국 한문자 수용과 발전에 있어서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에 비해 시기적으로 뒤쳐졌다. 그러나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에서 볼 수 없는 독자적 차자표기법을 창안했다. 앞글자는 훈으로 읽고, 뒷글자는 음으로 읽는 역상불역하(譯上不譯下)라는 차자법이 바로 그것이다. ‘譯上不譯下’라는 표현은 『삼국유사』 제4권 「원종 흥법 염촉멸신(原宗興法 猷觸滅身)」 기사에 처음 보이는데 ‘猷觸(염촉)’의 앞글자는 번역하고 뒷글자는 번역하지 않음을 뜻한다. 두 글자 이상의 차자 표기에서 한자의 훈(뜻)이 중심[主]이 되고, 음이 뒤따름[從]을 뜻하는 훈주음종(訓主音從)과 역상불역하는 그 본질이 유사하다. ‘역상불역하’라는 표현이 신라 당대 자료에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향가와 이두문 등의 표기에 이용되었다.

신라 사람들은 한자의 음과 훈을 빌려 표기 수단으로 이용하였고, 여기에 창의적 변용을 더하였다. 이 과정(process)을 <학습⇒내면화⇒창의적 변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한자의 음과 훈을 이용한 차자법을 만들고, 신라어 표현에 가장 적합한 ‘역상불역하’의 방법을 창안해 냈다. 한문자의 학습과 내면화 그리고 창의적으로 변용한 작업에는 이것을 행한 행위 주체가 있게 마련이다. 7세기 중반~8세기에 신라의 학술 음의가(音義家, 원축·순경 등) 수십 명이 활동하였다. 이들은 화엄경 등 여러 불경에 음과 뜻을 풀이한 주석을 달았다. 이 작업은 불경의 한문을 신라말로 이해하기 위한 것이었다. 주석의 상당 부분은 한자, 한문구, 한자 음에 대한 풀이(釋名)이다. 비문과 목간문을 작성한 문척(文尺)도 이두문의 발달에 일정한 역할을 했을 것이

*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다. 유교 경서를 공부한 유학자를 대표하는 인물은 설총과 강수이다. 설총은 경서를 신라어로 풀이함으로써 유학 공부는 물론 구결의 발전에 기여했다. 화랑은 경서를 학습하고, 향가를 짓고 부름으로써 차차법 발달에 일정한 역할을 했다. 화랑도 교육은 백제와 고구려에 없는 신라 특유의 청년 교육 제도였고, 향가 역시 신라 특유의 것이다. 역상불역하의 차차표기법도 신라 특유의 것이니 지도자로서의 승려, 교육생으로서의 화랑, 이들이 지어 부른 향가, 향가를 표기하기 위한 역상불역하의 원리는 서로 밀접한 상관성을 맺으며, 차차표기법 발달의 배경이 되었다.

▶ 핵심어: 역상불역하, 훈주음종, 향가, 이두, 문척, 음의가 학습

I. 연구 목적

‘역상불역하(譯上不譯下)’란 두 개 이상의 차자 구성에서 앞 글자는 뜻으로 번역해서 읽고 뒷글자는 번역하지 않고 음으로 읽는 차차표기법이다.¹⁾ 역상불역하의 방법은 고유명사 표기 및 향찰 표기에 공히 적용되었다. 고유명사를 음독자 혹은 음가자로 적는 방식은 고구려와 백제 자료에도 쓰인 것이지만 한자의 훈과 음을 빌려 고유어를 표기하는 역상불역하 방법은 신라 자료에서만 관찰된다. 역상불역하는 한문자를 토착적으로 변용한 차자 방식이며, 오늘날 훈주음종(訓主音從)²⁾이라고 표현하는 방식과 그 성격이 비슷하다. ‘역상불역하’는 역자(譯字)의 위치가 위(上, 앞)이고, 불역자(不譯字)의 위치가 아래(下, 뒤)에 놓임을 명기한 표현이고,³⁾ ‘훈주음종’은 주와 종의 관계 즉 중심과 주변의 관계로 훈독자와 음독자의 위상을 구별한 표현이다.

‘譯上不譯下’라는 표현은 『삼국유사』에서 ‘異次頓(이차돈)(506~527)’의 성명을 설명한 문맥에 처음 쓰였

- 1) ‘역상불역하’라는 표현을 가장 먼저 주목한 학자는 홍기문이다. 홍기문은 『삼국유사』의 ‘厭彌’를 설명하면서 “우는 번역하고 아래는 번역치 않기 때문에 厭彌이라고 하고”, “여기서 우만 번역하였다는 것은 결국 厭으로 의역을 했다는 의미요, 아래를 번역치 않았다는 것은 彌 觀 등 음역을 그대로 두었다는 의미다.”라고 하였다(홍기문, 1957, 『리두연구』, 과학원출판사, pp.20-21). 그는 의역과 음역에 의한 반반의 번역을 ‘반음역(半音譯)’이라고 불렀다. 홍기문 이후 역상불역하의 의의를 조명한 연구로 김민수(2002, 「차차표기 음독의 『隨書者之便』에 대하여, 『구결연구』 9, 구결학회)와 정광(2003, 「한반도에서 한자의 수용과 차차표기의 변천, 『구결연구』 11, 구결학회)이 있다.
- 2) 김완진은 ‘리=나라’, ‘心音=무슴’ 등과 같이 “뜻을 나타내는 글자를 머리에 놓고 다음 글자로 그 형태의 끝부분을 나타내는 방식”을 훈주음종(訓主音從)이라고 명명하였다(김완진, 1980, 『향가 해독법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p.17). 그런데 김완진, 1980, 앞의 책에 역상불역하에 대한 언급은 없다. 한편 유창균은 ‘훈주음종의 기준’을 ‘幹訓尾音의 機制(간훈미음의 기제)’라 바꾸어 불렀다(유창균, 1994, 『鄉歌批解』, 형설출판사, p.45).
- 3) 양주동은 ‘의자말음첨기법(義字末音添記法)’이란 용어를 썼다(양주동, 1965/1983, 『증정 고가연구』, 일조각, p.61). “詞腦歌에 가장 慣用된 記寫法은 體·用言의 一單語를 먼저 義字로 表示하고 다음 그 말의 末音 또는 末音節을 주로 音借字로 添記함이니 이를 義字末音添記法이라 한다.”라고 하였다. ‘훈주음종’이란 용어에 앞서서 만들어진 것이 ‘의자말음첨기법(義字末音添記法)’인 셈이다.

다.⁴⁾ 이차돈의 성은 ‘朴’이고 이름은 ‘猷鬻’⁵⁾(염축)이라 하면서, ‘猷鬻’의 ‘猷(=猷)’은 번역해서 뜻으로 읽고, ‘鬻’은 번역하지 않고 음으로 읽는다는 것⁶⁾이다. ‘猷鬻’에서 앞의 글자를 전부(前部) 요소, 뒤의 글자를 후부(後部) 요소라 할 때, 전부 요소는 번역해서 읽고 후부 요소는 음으로 읽는 것이 역상불역하이다. 음으로 읽는 후부 요소는 쓰는 사람의 편의에 따라 달리 쓰는 ‘도움말=조사(皆隨書者之便 乃助辭也)’라고 하였다. 뜻으로 읽는 전부 요소를 ‘훈차자’, 음으로 읽는 후부 요소를 ‘음차자’라 부른다.⁷⁾ 전부 요소 즉 훈차자는 표기 면에서 그 배치가 상당히 폐쇄적임에 비해 후부 요소 즉 음차자는 개방적이며, 훈차자가 문장의 근간을 이루지만 음차자가 훨씬 능동적 기능을 발휘하여 기능부담량이 높고 다양한 특성을 가진다.⁸⁾

김민수는 ‘隨書者之便(수서자지편)’과 ‘譯上不譯下’를 용자(用字) 규칙의 두 원리라 하고, 전자는 譯上(훈독)과 不譯下(음독)에 두루 적용되고, 후자는 ‘猷鬻’과 같은 일부 어형에 적용된다고 보았다.⁹⁾ 김민수는 ‘수서자지편’을 중국 운학의 계련법(系聯法)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 청나라 음운학자 陳澧(진례)(1810~1882)가 『절운(切韻)』을 연구하여 계련법¹⁰⁾을 발견한 사실과 관련지어, 역상불역하는 반절에 나타난 계련법을 신라 방식으로 변용한 것이라고 해석했다.¹¹⁾ 김민수는 계련법의 발견이 19세기 중국 음운학계의 성과라고 각광 받아왔으나 사실은 이미 고대 한반도에서 창안된 ‘수서자지편’의 아류라고 하고, 수서자지편은 계련법과 상통한다는 점에서 “보편성의 경지를 개척한 것”이라고 평가했다.¹²⁾ 정광은 역상불역하 방식을 혼합표기라 부르고, 이 방법은 한국어에서 어간이 어휘적 의미를 나타내고 어미가 문법 기능을 나타내는 곡용과 활용의 형태론적 절차를 드러내는 데 유용한 것¹³⁾이라고 하였다.¹⁴⁾

고대 삼국의 차자법 중 가장 독특한 방법인 역상불역하를 만들어 낸 곳은 신라이다. 역상불역하라는 차

4) 『삼국유사』 제3권, 「원종흥법 염축멸신(原宗興法猷鬻滅身)」 기사, “粵有內養者, 姓朴字猷鬻 [或作異次, 或云伊處, 方音之別也, 譯云猷也. 鬻頓道觀獨等, 皆隨書者之便, 乃助辭也. 今譯上不譯下, 故云猷鬻, 又猷觀等也.]”

5) 박방룡은 『삼국유사』 고판본과 임진왜란 이전에 이차돈순교비의 일부 내용을 판각 간행한 『元和帖(원화첩)』을 이용하여 이차돈순교비의 비문을 재판독하고, 종래 ‘猷鬻’이라 읽던 자형을 ‘(胃犬)鬻(위축)’으로 읽었다(박방룡, 2020, 「이차돈 순교비의 諸檢討」, 『신라문화유산연구』 4, 신라문화유산연구원).

6) 이기문은 전자를 석독표기, 후자를 음독표기라고 칭했다(이기문, 1972, 『국어사개설』, 탑출판사, p.65). 정광은 ‘猷鬻’의 ‘猷’은 훈가자로 ‘잇-(惡, 厭)’의 의미를 나타내고, 아래의 ‘鬻’은 ‘잇-(惡, 倦, 厭)’의 말음절 ㅅ을 표기한 음가자라고 하였다. ‘猷鬻’이란 차자표기는 반은 뜻을 빌리고, 반은 음을 빌리는 半借義 차자 방식이라고 보았다(정광, 2003, 앞의 논문, p.70).

7) 서재극, 1995, 『중보 신라향가의 어휘연구』, 형설출판사, p.9.

8) 위의 책, p.10.

9) 김민수, 2002, 앞의 논문, pp.7-8.

10) 진례(陳澧)가 『절운』과 『광운』 등의 운서에 존재한 성모를 파악하기 위해 만든 방법이 반절 계련법(反切 繫聯法)이다. 반절 계련법이란 동일한 반절 상자나 반절 하자를 사용하는 한자음은 각각 동일한 성모나 운모를 갖고 있다고 전제하고 반절자를 분류하는 방법이다.

11) 김민수, 2002, 앞의 논문, p.7·p.13.

12) 위의 논문, p.15.

13) 홍기문은 역상불역하의 이러한 특징을 “우리말에서 토를 구별해 내고 또 토의 한자 표기가 복잡한 현상을 지적한 것”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홍기문, 1957, 앞의 책, p.51).

14) 정광, 2003, 앞의 논문, p.72.

자법이 신라에서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무엇이고, 이 방법의 생성 주체는 누구일까? 이 질문은 매우 흥미로운 것이나 그 답을 찾기가 쉽지 않다. 윤선태는 한자 수용에서 뒤쳐진 신라가 고구려와 백제가 시도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이두 표기법을 발상하고 향찰로 구체화하여 이두를 완성시킨 역사적·구조적 조건을 밝히려고 하였다.¹⁵⁾ 윤선태 교수의 논구 내용을 필자가 이해한 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신라는 한문자 수용 이전부터 명령을 구두로 전달하는 '구두전달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냉수리비, 월성해자목간 등에는 '敎' (명령), '白' (보고), '口' (집행), '響' (이의 제기) 등 구두전달체계를 표현하는 한자가 쓰였다. 남산신성비의 '爲聞敎令위문교령'은 '듣게 한' 구두명령 행위를 표현한 문구이다. 고구려나 백제와 달리 신라는 한문자에 의한 문서 행정을 시작하기 이전에 구두 명령 전달 시스템이 작동했고, 문서 행정이 수용된 이후 문서 표현 방식에 구두 명령 즉 구어체를 재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러한 흐름의 결과로 문서 기록에 신라어 요소를 가미한 이두가 탄생한 것이다. 신라인들은 구두 명령 체계에서 달성한 의사소통 수준을 문서의 형식과 내용에 담으려 했고, 이것이 이두 탄생의 '신라적 조건'으로 작용했다. 7세기 후반 설총이 이두를 창안했다는 이야기는 식자층 전반이 이두를 공유한 최종적 발달 단계를 상징한다.¹⁶⁾

이 설명에서 신라의 문서 행정을 오랫동안 연구하면서 축적된 식견과 통찰력의 깊이를 엿볼 수 있다. 필자는 이 설명을 적절히 수용하면서 역상불역하라는 신라 특유의 차자표기법을 만든 주체를 밝히고, 이것이 생성된 과정과 사회적 배경을 파헤쳐 보려 한다. 신라 학습의 불경 연구와 금석문 등의 문서를 작성한 문척(文尺)의 역할을 중시하고, 아울러 신라의 제도 운영에 나타난 특유 요소를 고려하여 역상불역하의 생성 과정과 시기, 생성 주체와 배경을 더 넓은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II. 훈독법의 발달과 역상불역하의 생성

1. 신라의 한문자 수용과 발전 단계

고대 삼국 중 신라의 한문자 유입과 정착이 시기적으로 가장 늦다. 송기호의 연구¹⁷⁾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의 한문자 수용과 관련된 몇 가지 사실을 간추려 그 연대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15) 윤선태, 2011, 「백제와 신라의 한자·한문의 수용과 변용」, 『동아시아의 문자교류와 소통』, 동북아역사재단, p.131.

16) 위의 논문, pp.155-158.

17) 송기호, 2002, 「고대의 문자생활 -비교와 시기 구분」, 『강좌 한국고대사』(제5권 문자생활과 역사서의 편찬), 가락국 사적개발 연구원, pp.24-25.

표 1. 삼국의 문자 사용과 관련된 사실의 연대 비교(송기호, 2002, 앞의 논문, pp.24-25에서 발췌)

항목	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
교육기관 설치		372년 경당(局堂) 설치	*404년(?) 박사 아직기(阿直岐)가 일본에 건너감 *513년 오경박사를 둠	*651년 박사와 조교를 둠 *682년 국학 설치
서적 수입		*372년 불상 경문을 보냄 *5세기 말 오경을 읽음	*404년(?) 아직기가 경전을 읽음 *450년 『易林』과 『式占』을 구함	*565년 불교 경론서 1700여 권을 보냄 *648년 晉祠碑并新撰晉書を 내려줌
역사서 편찬		*국초에 유기(留記) 편찬 *600년 신집(新集) 편찬	375년 서기(書記) 편찬	545년 국사(國史) 편찬
율령 반포		373년 율령 반포	262년 도적 등 범죄 처벌령을 내림	520년 율령 반포

한문자 사용과 관련된 교육기관 설치, 서적 수입, 사서 편찬, 율령 반포 등에서 신라의 상대적 후진성이 이 표에 역력히 나타나 있다. 사서를 편찬하려면 인명, 국명, 지명 등 고유명사를 적어야 하기 때문에 사서 편찬은 한문자 사용의 토착화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사서 편찬에서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에 비해 200~300년 정도 뒤쳐진 모습을 보여 준다.

신라에서 문자 사용의 발전 계기로 율령 반포(법흥왕, 520), 이차돈의 순교(527)와 불교 공인, 승려의 견당 유학(遣唐留學), 유학의 확산과 국학 설치(682)를 꼽을 수 있다. 율령을 반포한 것은 문서 행정의 시작을 의미한다. 549년에 최초의 유학승인 각덕이 귀국하였고, 565년과 576년에 이르러 불경을 들여오기 시작하였다.¹⁸⁾ 원광은 25세 되던 589년에 중국 남조의 진(陳)으로 유학하였고, 신라로 돌아와서 유교적 가르침이 담긴 세속오계를 지어 시대가 요청한 덕목을 제시했다.¹⁹⁾ 진흥왕이 설치한 대서성에 고승을 임명한 것은 당시에 승려층이 한문 작성에 가장 뛰어났음을 의미한다.²⁰⁾ 7세기 중엽에 활동한 강수는 신라의 변방인 충주 지역에 살면서도 당나라 사자가 가져온 황제의 조서를 막힘 없이 풀이하였다(654).²¹⁾

18) 위의 논문.

19) 이희준, 2016, 「제2편 통일신라-제5절 유학과 문화」, 『(개요)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문화편』,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편찬위원회 편,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p.313.

20) 『삼국사기』 권40, 직관 하(職官 下)에 진흥왕 대에 안장법사(安藏法師)가 대서성(大書省)으로 임명되었다. 이와 동일한 승려 이름이 천전리서석 갑인명(川前里書石 甲寅銘)에도 나온다.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의 <한국고대금석문> 울주 천전리 각석(이문기 집필)에서 인용함. <https://db.history.go.kr>

21) 強首 中原京沙梁人也. (…중략…) 及太宗大王即位 唐使者至傳詔書 其中有難讀處 王召問之 在王前一見說釋無疑滯 王驚喜 恨相見之晚. <삼국사기 권46, 列傳 第六 強首 崔致遠 薛聰>. 이 기록에서 강수가 증원경 즉 충주 지역 출신임을 알 수 있다. 강수가 왕경[경주]에서 멀리 떨어진 변방에 살면서도 당나라 외교 문서까지 이해한 것이다. 이러한 강수의 한문 능력은 당시의 충주 지역에 당의 외교 문서를 읽어낸 한문 능통자가 살고 있었음을 암시한다.

신라 금석문으로서 연대가 가장 앞선 중성리비(501)의 한문은 고구려 광개토왕비(414)의 한문 수준과 큰 격차를 보인다. 400년에 가야와 왜가 연합하여 신라를 침공하였고, 광개토왕이 신라를 구하기 위해 구원병을 보냈다. 이를 계기로 고구려의 문자 자료(서봉총 출토 은합우 명문)가 신라로 유입되었다. 신라 사회에 한문이 수용되고 내적 발전이 이루어지는 과정²²⁾을 고구려의 영향 및 불교의 수용과 관련지어 설명한 후보돈은 금석문과 사료 등에 나타난 문자 관련 기록을 근거로 신라의 한문 수용과 발전 과정을 세 단계로 구분했다.²³⁾ 1단계는 6세기 초 이전까지이고, 2단계는 6세기 초에서 7세기 후반까지, 3단계는 7세기 후반 이후로 나누었다.²⁴⁾ 2단계에 속한 6세기의 신라 금석문 자료는 한문자 수용의 역사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중성리비(501), 냉수리비(503), 봉평비(524), 천전리서석 원명(525)과 추명(539), 적성비(551?), 임신서기석(552 혹은 612), 명활산성비(551), 창녕 진흥왕척경비(561), 무술오작비(578), 남산신성비(591)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²⁵⁾

2. 6세기 후기에 역상불역하가 존재했을까?

역상불역하 방식이 어느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 갈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자. 역상불역하 방식은 향찰 해독의 열쇠로 김완진이 제시한 훈주음종의 기준²⁶⁾과 유사하다. 여러 학자들이 훈주음종의 기원을 당대 사료(금석문 혹은 목간문)에서 찾으려고 시도해 왔다. 이승재는 함안 성산산성목간(6세기 중반)의 ‘文尸[*글]’(4회), ‘蒜尸[*나닐]’, ‘糸利[*시리]’, ‘四尸[*너 리]’, ‘糸利[*터리]’, ‘益丁[*더명]’, ‘尸 糸[*다슴]’ 등에 훈주음종을 적용하여 해독하였다.²⁷⁾ 이와 함께 이성산성목간, 월성해자목간, 경주박물관터목간, 안압지목간 등에 쓰인 ‘大舍[*한사]’(3회), ‘赤居[*블거]’, ‘有史[*이시]’, ‘三巴[*사답]’, ‘一巴[*흐 답]’, ‘助史[*맏]’(6회) 등에도 훈주음종을 적용하여 해독했다. 이승재의 이러한 해독은 훈주음종 방식이 6세기 중엽에 일반화되었다고 본 셈이다. 권인한은 성산산성목간의 고유어를 분석하면서 ‘文尸’, ‘蒜尸’은 혼독 가능성이 농후한 표기라고 언급했다.²⁸⁾

그러나 백두현은 ‘文尸’ 뒤에 ‘只’ 혹은 ‘伊’가 붙은 용례를 중시하여 ‘文尸只’와 ‘文尸伊’²⁹⁾는 묶어서 읽어야 한다고 보았다.³⁰⁾ ‘蒜尸支’³¹⁾도 이와 같다. 아울러 ‘益丁’ 등의 해독도 더 많은 문증이 필요하다고 하며 판단

22) 후보돈, 2001, 「신라에서의 한문자 정착 과정과 불교 수용」, 『영남학』 1,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p.200.

23) 후보돈, 2002b, 「신라의 漢文字 정착 과정과 불교 수용」, 『금석문과 신라사』, 지식산업사; 후보돈, 2009, 「職名·官等·地名·人名을 통해 본 6세기 신라의 漢文字 정착」, 『한국 고대사 연구의 현단계(석문 이기동교수 정년기념논총)』, 논총간행위원회, 주류성.

24) 후보돈, 2002b, 앞의 논문, p.402.

25) 이영호는 1980년대 이후에 새로 발견된 신라의 금석문, 목간문, 기와 명문, 목서 자료, 토기 명문 등 20점의 자료를 종합 정리하고 그간의 연구 동향과 연구 가치를 논하였다(이영호, 2010, 「신라의 신발견 문자 자료와 연구 동향」, 『한국고대사연구』 57, 한국고대사학회). 이 중에서 6세기 자료를 확인하여 그 가치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26) 김완진, 1980, 앞의 책.

27) 이승재, 2013, 「신라목간과 백제목간의 표기법」, 『진단학보』 117, 진단학회.

28) 권인한, 2020, 「함안 성산산성목간의 고유명사 표기자 분석」, 『목간과 문자』 25, 한국목간학회, p.17.

29) 성산산성목간의 예: 陽村文尸只(국가귀속번호 가야42), 陽村文尸只稹(국가귀속번호 가야1597), 及伐城文尸伊稹石(국가귀속번호 호 가야2004), 及伐城文尸伊急伐尺稹石(국가귀속번호 가야2005).

을 유보하였다. ‘文尸只’, ‘文尸伊’, ‘蒜尸支’의 끝에 붙은 ‘支~只’, ‘伊’는 인명에 붙는 접미사이며, 음가자 ‘기’³²⁾와 ‘이’로 읽을 수 있다. 이 접미사 앞의 ‘文尸’을 혼독하여 ‘글’로 읽고, ‘蒜尸’을 혼독하여 ‘마늘’로 읽는다면 ‘文尸只’는 ‘글기’, ‘文尸伊’는 ‘글이’, ‘蒜尸支’는 ‘마늘기’가 된다. ‘尸’는 어간 말음 ㄹ을 표기한 것이 된다. 만약 이 독법이 옳다면 성산산성목간이 쓰여진 560년경³³⁾에 혼독법은 물론 앞글자를 번역해서 읽고 뒷글자는 그것의 발음을 표기한 말씀첨기법³⁴⁾까지 존재한 것이 된다.

그런데 ‘文尸只’, ‘文尸伊’, ‘蒜尸支’의 첫 글자가 혼독되었고, 이 예들의 ‘尸’가 ㄹ을 표기한 말씀첨기자라고 보는 것은 쉽지 않다. 성산산성목간에 기재된 여러 인명과 지명들은 모두 음가자로 쓰였다. 예컨대 ‘居利支’, ‘波兮支’, ‘仇仍支’, ‘阿那休支’, ‘阿那[衆]支’, ‘卜利古支’, ‘內隱支’, ‘居助支’ 등의 인명들은 모두 음가자 표기이다. 혼독자로 볼 만한 예가 없다. 성산산성목간에 기재된 지명 역시 접미어로 쓰인 ‘村’, ‘谷’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음가자로 표기되어 있다. 인명과 지명이 모두 음가자로 표기되었는데, ‘文尸只’, ‘文尸伊’, ‘蒜尸支’만 선행 두 자를 ‘글’과 ‘마늘’로 혼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文尸’과 ‘蒜尸’가 ‘글’과 ‘마늘’로 읽혔음을 논증하려면 ‘尸’가 말음 ㄹ을 표기한 예를 다른 6세기 금석문과 목간문에서 찾아내야 한다. ‘文尸只’, ‘文尸伊’, ‘蒜尸支’의 ‘文尸’와 ‘蒜尸’를 혼독자 및 말씀첨기자의 선구적 예라고 간주하려면 이를 뒷받침해 주는 증거가 필요하다.

설령 ‘文尸’과 ‘蒜尸’의 뒷글자 ‘尸’는 혼독된 어간(글, 마늘)의 말씀첨기자라고 보더라도 이것을 역상불역하라고 말하기에 모자람이 있다. ‘尸’가 ‘불역하’로서 음차된 것이라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청제비 병진명(536)에 나타나는 인명 중에는 ‘尸支’(시기)가 있다. 이 ‘尸支’는 ‘文尸只’ 및 ‘蒜尸支’에 포함된 ‘尸只’ 혹은 ‘尸支’와 같은 형태이며, 이들의 음상도 같았을 가능성이 있다.³⁵⁾ 이 점을 고려하여 필자는 성산산성목간의 ‘文尸只’, ‘文尸伊’, ‘蒜尸支’의 ‘文尸’와 ‘蒜尸’를 각각 ‘글’과 ‘마늘’로 혼독하지 않는다.

역상불역하 방식이 적용된 ‘赫居世’(북거세?), 혼독자만으로 표기된 ‘齒理’(닛금), 음가자만으로 표기된 ‘尼師今(니사금)~尼叱今(닛금)과 같은 어휘들은 고려시대에 편찬된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 실려 있다. 『삼국유사』나 『삼국사기』는 후대에 편찬된 문헌이어서 ‘赫居世’와 같은 ‘혼독자-음가자’ 구성이 초기 신라에 존재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 ‘赫居世’라는 표기가 신라 시대의 어느 시점엔가 존재하였었고, 김부식과 일연대사는 신라의 ‘고기’(古記)에 적힌 ‘赫居世’ 등의 표기형을 참고했을 것이다. 그러나 ‘赫居世’란 표기가

30) 백두현, 2020, 「당대 자료로 본 혼독법의 생성 시기 고찰」, 『구결연구』 45, 구결학회, pp.46-47.

31) 蒜尸支(성산산성목간, 국가귀속번호 가야79)(목간자전 [城]80).

32) 支 zhī tsye (tsy- + -je A) *ke

33) 성산산성목간의 연대에 대한 제 학설의 검토는 이경섭, 2004, 「함안 성산산성목간의 연구현황과 과제」, 『신라문화』 23,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pp.216-218을 참고하였다.

34) 말씀첨기의 생성과 발달에 대한 논의는 신중진, 1998, 「말씀첨기(末音添記)의 생성과 발달에 대하여-음절말 자음 첨기를 중심으로」, 『구결연구』 4, 구결학회를 참고하기 바란다. 이용은 일반 문자론적 관점에서 ‘말씀첨기’를 ‘음성 보충자’(phonological complement, phonetic complement)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이용, 2023, 「차자표기에 나타나는 초성·종성 통용자」, 『구결연구』 50, 구결학회, pp.207-209).

35) 그런데 청제비 병진명(536)의 인명 ‘尸支’(시기)는 ‘支’가 접미사가 아닐 가능성을 보여 준다. 이 ‘尸支’는 使人(사인)의 이름을 나열하는 문맥 ‘述利大烏第 尸支小烏帝’에 쓰인 것이다. 이 부분의 판독상 문제점과 이견은 <한국사데이터베이스>(한국고대금석문-신라-비문-영천 청제비 병진명)의 주석 32~35에 요약되어 있다.

신라 시대에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당대 사료에 쓰인 예가 없기 때문에 '赫居世'의 생성 시기를 특정하여 말할 수 없다.

신라의 역사서인 『국사』는 545년에 편찬되었다. 신라 역사를 쓰려면 왕호와 왕칭어가 필수적이다. 545년에 편찬된 『국사』에 '혁거세', '차차웅', '니사금'과 같은 왕칭어가 어떻게 표기되어 있었을까? '次次雄(차차웅)과 '尼師今(니사금)은 모두 음가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맥락으로 보면 545년의 『국사』에서 신라 시조를 '赫居世'로 표기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중성리비(501), 냉수리비(503), 봉평비(524) 등의 비문에 훈독자+음가자 구성을 보인 표기례는 전혀 없기 때문이다. 6세기 말기에 세워진 남산신성비(591)에 다수의 인명 표기례가 나오지만 이들은 모두 음가자로 표기되어 있다. 이 점으로 보아 『국사』에 표기된 신라 시조명은 『삼국유사』 권1, 「신라시조혁거세왕」 기사에서 '或作弗矩內王'이라고 한 '弗矩內(불구내)로 봄이 적절하다. '弗矩內'는 '次次雄'과 '尼師今'처럼 음가자로만 구성된 표기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필자는 6세기 중엽에도 역상불역하의 원리가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3. 신라의 관등명 '波珍'(바돌)이 갖는 과도기적 성격

신라의 관등명 '波珍'은 천전리서석 추명(525)과 적성비(551?)에 '波珍干支'로 쓰였다.³⁶⁾ 이기문은 『삼국사기』의 관등명 '波珍滄或云海干'에서 '波珍'을 *patɔr(海, 바돌)로 읽었다.³⁷⁾ 또한 백제 지명 "石山縣本百濟珍惡山縣"과 "馬突縣一云馬珍"에서 '石:珍:突'의 대응 관계에 주목하여 '珍'의 釋을 *tur(돌)로 재구했다.³⁸⁾ 남풍현은 단양적성비의 '波珍干支'와 『일본서기』의 '珍'을 관련지어 '珍'을 '돌'로 훈독했다.³⁹⁾ '波珍'의 '珍'을 훈독하여 '돌'로 읽으면서 '波珍'을 '바돌'로 해독하는 것은 차자표기법의 발달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珍'의 상고음은 tien 혹은 tiən에 가까운 음으로 재구되어 있어서 '돌'은 '珍'의 고음(古音)이 될 수 없다.⁴⁰⁾ 따라서 천전리서석 추명과 적성비에 쓰인 '波珍'은 '바돌'로 읽는다.⁴¹⁾ '波珍(바돌)에서 '波(바)는 음차자이고, '珍(돌)은 훈가자이다. 달리 말해 '波(바)는 음차자이고, '珍(돌)은 훈차자이다. '波珍(바돌)은 뒷글자를 훈으로 읽고 앞글자를 음으로 읽어 역상불역하를 뒤집어 놓은 것처럼 보인다.⁴²⁾ 금석문이라는 당대 자료에 등장

36) 백두현, 2020, 앞의 논문, p.34.

37) 이기문, 1972, 앞의 책, p.65.

38) 위의 책, p.37.

39) 남풍현, 2000, 『이두연구』, 태학사, p.127.

40) 백두현, 2020, 앞의 논문, p.35.

41) 시대가 뒤쳐지는 화엄경사경조성기(755)의 지명 표기 '仇叱珍兮縣[굿돌히현]과 '武珍伊州[무돌이주의 '珍[돌]도 그 성격이 같다.

42) 향가를 해독하면서 서재극은 훈차자가 음차자 뒤에 놓이는 예를 언급한 바 있다(서재극, 1995, 앞의 책, p.9). 서재극은 「우적가」 제2행 '兒史毛達只'을 '죽 모 주락(形體를 부족하게)로 풀이하면서 '毛達只[모 주락]이 그 예라고 하였다. '毛'는 음가자 '모'로 읽고, '達只'는 훈독자+음가자 구성인 '주락'으로 읽었다. 그런데 '毛達只'의 해독 어형은 향가 해독자에 따라 다른 점이 있어서 여기서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서재극은 『향약구급방』에서 '蒼耳'를 '升古休伊[덧고마리]로 적은 것도 음차자가 훈차자 앞에 놓인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升古[덧고]의 '升'은 훈차자 '도'(<되)이고, '古'는 음차자 '고'로 보고, '休伊[말이] 역시 훈차자 '休'와 음차자 '伊'의 결합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 ‘波玢(바돌)’은 역상불역하의 발달 과정에서 일정한 의미를 갖는다. ‘波玢’은 ‘海’의 훈 ‘바돌’을 두 자의 한자로 표기한 것인데, ‘玢’은 훈차자로 이용되었다. ‘波玢(바돌)’은 역상불역하로 나아가는 초기 단계의 모습을 띠고 있다.⁴³⁾

이밖에도 신라 고유어를 한자의 음과 훈으로 표기해 보려는 노력은 ‘喙部(탁부)나 ‘沙喙部(사탁부)에 쓰인 신라 조자(造字) ‘喙(탁)자에서 찾아볼 수 있다. ‘둑~돌’로 독음된 ‘喙(탁)은 신라의 고유어 ‘둑’을 표기하려는 노력의 결과이다. 『삼국사기』에서 ‘喙部’를 ‘梁部’로, ‘沙喙部’를 ‘沙梁部’로 고쳐 표기한 것은 ‘梁’의 독법이 ‘喙’과 같았음을 의미한다. 『훈몽자회』(1527)에 “梁 돌 량”(존경각본 上 5a)이 나오고, 이보다 앞선 『월인석보』(1450)의 협주에 “梁은 두리라”(21, 77a)가 발견된다. 따라서 ‘梁’의 훈은 ‘돌~돌’로 잡을 수 있다. 이 훈은 ‘喙’의 신라식 독음인 ‘돌~달’과 근사하다. ‘梁(돌)은 훈독자이고, ‘喙(돌~달~닥)은 음가자이다.⁴⁴⁾ 이 한자들은 신라 고유어를 표기해 보려는 노력과 그 과정의 일면을 보여 준다.

‘波玢(바돌)’과 ‘沙喙部(사둑부)에서 ‘玢(돌)은 훈가자처럼 쓰였고, ‘喙(둑)은 음가자로 쓰였다. 그런데 ‘玢’과 ‘喙’의 음상은 ‘돌’과 ‘둑~돌’로 서로 유사한 점이 있다. 신라어 ‘돌’ 혹은 ‘둑’을 표기하기 위한 노력이 ‘波玢(바돌)’과 ‘沙喙部(사둑부)와 같은 차자 표기를 생성한 것이다. 6세기 초기 1차 자료에 등장한 이러한 표기들은 ‘역상불역하’의 방법이 나오기 이전 시대의 것이다. 이 점을 고려하여 필자는 ‘波玢’과 같은 표기가 혼독법 생성의 씨앗이 아닌가 추정해 본다.

4. 안압지목간 ‘加火魚 助史’의 독법

안압지목간 188번(8세기 중후기)에 나온 ‘加火魚(가화어) 助史(조사)’에 대한 연구도 혼독법과 관련되어 있다. ‘加火魚’의 ‘加火’를 ‘가불~가브리’로 읽는 견해가 여기에 해당한다.⁴⁵⁾ 이 견해에 따라 ‘加火魚’를 ‘가블어’로 읽는다면 ‘加火’의 ‘加’는 음가자이고, ‘火(불)는 훈가자가 되어, 역상불역하의 앞뒤를 뒤집어 놓은 것이 된다. 이것은 ‘波玢(바돌)’처럼 제2음절을 혼독하고 혼독 어형을 훈가자로 전용(轉用)한 것이다.

그러나 ‘加火魚’를 ‘가블어’로 읽을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한자어 ‘加火魚’의 중간자 하나만 혼독하는 것은 어색해 보인다. 만약 *加火利魚(가화리어)와 같이 말음절 첨가자 ‘利’를 가진 표기례가 있다면 ‘火利’는 ‘브리’로 혼독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표기례가 없을 뿐 아니라 ‘가블어’ 혹은 ‘가브리어’와 같은 한글 물명 표기가 역대 문헌과 방언 자료에 쓰인 예가 없다.⁴⁶⁾ 이런 사실로 보아 안압지목간의 ‘加火

43) 그런데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고대금석문의 적성비 판독문에는 ‘波玢干支(피진간지)로 되어 있다. 이 ‘波玢’은 ‘波玢’처럼 ‘바돌’로 읽어야 한다. 그래야 ‘波玢’을 ‘海干(해간)의 ‘海’와 대응시킬 수 있다.

44) ‘梁’과 ‘喙’에 대한 선행 연구의 요점은 백두현(2020: 33-36)을 참고하기 바란다. 필자는 특히 ‘梁(둑), ‘喙~喙(둑-닥), ‘涿~喙(둑-닥)이라는 김영만(2007)의 해독과 ‘喙’을 ‘탁’으로 읽고, ‘답’과 관련지어 해석한 주보돈(1999: 582-583)의 연구를 중시하였다.

45) 이용현, 2007a, 「문자 자료로 본 삼국시대 언어문자의 전개」, 『구결연구』 19, 구결학회, p.213; 김영옥, 2007, 「고대 한국목간에 보이는 석독표기 : 향가 표기법의 기원을 찾아서」, 『구결연구』 19, 구결학회, p.175.

46) 경상방언에 ‘가부리는 있지만 ‘가브리어나 ‘가부리어’는 없다.

魚'는 '가화어'로 음독되었을 가능성도 있다.⁴⁷⁾

'加火魚' 뒤에 붙은 '助史'는 '젓'의 음차 표기일 수 있다는 최초의 제안은 하시모토 시게루에서 이루어졌고,⁴⁸⁾ 이용현⁴⁹⁾과 이승재⁵⁰⁾에서 언급되었다.⁵¹⁾ 이들의 연구는 '助史'를 '젓(醃해, 鮓자)'으로 읽고 '史'를 말음 첨기자(未音添記字)로 보았다. 이 해독이 옳다면 '助史'는 음가+음가 구성이 된다. 이 견해와 달리 이문기는 안압지목간을 궁문 경비 파수꾼과 관련된 8세기 후반의 목간으로 보고, '助史'가 쓰인 5개 목간을 분석하여, '助史'는 말단 관원인 '史'를 보조하던 궁중 잡역인을 가리킨 것이라고 결론지었다.⁵²⁾ '干'은 전문 기술직을 뜻한 직명이고, '史'는 말단 관원이며,⁵³⁾ '助史'는 '史'를 보조한 잡역인을 뜻한다고 보았다. 이런 맥락으로 보면 '加火魚 助史'는 '가블어 젓'이 아니라 '加火魚의 관리를 맡은 助史[말단 관리]'를 뜻한다.

그러나 이 목간은 창고 정리용 꼬리표 목간(荷札木簡)⁵⁴⁾이어서 관직명이 들어갈 문맥이 아니다. 안압지 목간에서 '助史'는 '加火魚助史', '猪助史', '赤魚助史', '簞助史'의 예처럼 어류와 육류 명사 뒤에 쓰이고 있으며, 젓갈을 뜻하는 '醃' 혹은 그릇을 뜻하는 '醃'과 교체되는 문맥에 쓰여 있다.⁵⁵⁾ '助史'와 '醃'의 교체에서 전자는 고유어 '젓'의 음가자 표기이고, 후자는 이것을 한자어로 표기한 것이라는 해석을 끌어낼 수 있다. 고유어 물명을 음가자로 표기한 '助史(젓)'⁵⁶⁾ 이것을 한역(漢譯)한 표기 '醃(젓 해)'가 안압지목간이 제작된 시기(8세기 중후기)에 병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⁵⁷⁾ 이렇게 보더라도 '加火魚助史'는 역상불역하의 예가 아니다.

47) '加火魚'는 세종실록 148권 지리지 경기도 부평 도호부와 154권 지리지 평안도 향에 특산물 이름으로 실려 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실린 한자어 표기 '加火魚'가 '가블어'로 독음되었을 가능성은 없다.

48) 하시모토 시게루(橋本 繁), 2007, 「雁鴨池 木簡 判讀文의 再檢討」, 『신라문화연구』 창간호, 국립경주박물관.

49) 이용현, 2007b, 「안압지와 東宮 庖典」, 『신라문화연구』 창간호, 국립경주박물관.

50) 이승재, 2009, 「목간과 국어학」, 『고대의 목간, 그리고 산성(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학술총서 제44호)』,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국립부여박물관, p.182.

51) 이경섭, 2013, 『신라 목간의 세계』(경인한국학연구총서110), 경인문화사, pp.106-107.

52) 이문기, 2005, 「안압지 출토 목간으로 본 신라의 궁정 업무 -궁중 잡역의 수행과 궁정 경비 관련 목간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39, 한국고대사학회.

53) 신라 왕궁의 어룡성(御龍省) 산하 수공업 담당 관청에 '干'과 '史'를 두었다(노중국, 2001, 「新羅時代의 尺과 干 - 技術職으로서의 尺의 성립과 地位 변화를 중심으로 -」, 『한국고대사연구』 23, p.271·p.275). 노중국, 2001, 앞의 논문, p.271에는 『삼국사기』 권 제39, 잡지 제8 직관 중에 나온 干과 史의 배속 관청 이름(麻典, 肉典, 滓典, 楊典, 瓦器典, 機概典 등) 및 배속 인원수가 밝혀져 있다. 최일레는 신라 직관명 '史'를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史'가 배치된 관청과 왕대별 배치 인원의 증감 등을 자세하게 기술하였다(최일레, 2022, 「신라 직관명 '史'에 대한 검토」, 『세계역사와 문화연구』 63).

54) 이 용어는 한국 고대 목간을 용도별로 분류한 윤선대, 2007, 「한국고대목간의 형태와 종류」, 『역사와 현실』 65, 한국역사연구회, p.178에서 가져온 것이다.

55) 甲寅年壹月仇日作加火魚醃(221번), [三]月口日作[猪]醃口(216번), 三月廿一日作簞助史告口(222번), □□□正月十口日作口猪助史 百十瓮(211번), 猪水助史第一口瓮一入(183번), 十一月廿七日入口赤 魚助史六十口(215번), [朔]三日作口醃瓮(195번)

※ 이 자료는 이재환·오택현이 한국목간학회 제39회 정기발표회(2023.4.8. 중앙대학교)에서 “백제·신라 목간의 집계와 범례의 제안”을 발표하면서 공개한 엑셀 파일에서 가져온 것이다. 두 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56) 신라의 고유어를 음가자로 표기한 예는 8세기 전기 자료인 일본 동대사본 『화엄경』 및 미즈기이넬미술관 소장본 『판비량론』의 각필 자료에 나타나 있다.

57) 한편 '加火魚 助史'의 '助史'는 이두문에서 양인 여성을 뜻하는 '沼史(조시)'와 음성(音相)이 같다. 한글 표기 '조시'는 17세기 초기에 광주가 쓴 현풍곽씨언간의 3번 및 25번 편지에 나타나 있다.

5. 8세기 초기 자료에 모습을 보인 훈독법

8세기 전기에 필사된 『판비량론』 및 동대사본 『화엄경』에 나타난 ‘當⁵⁸⁾(반ㄷ기), ‘言^白(畚-), ‘或^刀(도)또), ‘說^{乃伊}(나이-), ‘餘^{多留}(다르-)는 모두 훈독법의 존재를 문증하는 예들이다(후술 2.6절 2)항 참조). 이 예들 중에서 ‘當^刀(반ㄷ기)는 훈주음중에 해당하는 표기로서 역상불역하에 가장 근접한 것이다.

8세기 초기 자료인 황복사석탑금동사리함명(706)의 ‘韓^舍와 ‘韓^奈麻, 화엄경사경조성기(755)에 공존하는 ‘大^舍와 ‘韓^舍는 ‘大’를 ‘한’으로 훈독한 증거이다.⁵⁹⁾ 이런 예들은 8세기 초기 혹은 직전 시기의 신라에 훈독법이 존재했음을 문증한다.⁶⁰⁾

그런데 훈독법이 존재했다고 하여 역상불역하가 성립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훈독법은 역상불역하의 필요조건이 될 수 있으나 충분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양자를 연관시켜 그 존재를 단정하는 것은 조심스럽다. ‘大^舍와 ‘韓^舍의 대응은 역상불역하의 성립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7세기 중엽에 의상이 귀국하고, 8세기 중엽 이후에 『화엄문의요결』 등이 일본에 전해지는 등 화엄학이 성행한 사실로 보아 『화엄경사경조성기』가 이루어진 8세기 중엽에는 차자법이 상당한 수준으로 발달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화엄경』의 조성 경위를 적은 『화엄경사경조성기』에 표기된 다양한 이두 형태는 이 시기의 발달된 차자표기 수준을 반영한 것이다.

6. 역상불역하의 생성

1) 원가(怨歌)의 배경 설화로 본 역상불역하의 생성 시기

역상불역하의 성립 여부를 탐색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향가가 문자로 기록된 시기를 확인하는 것이다. 필자가 2018년에 이 문제를 논한 바 있고,⁶¹⁾ 그 요점은 다음과 같다. 『삼국유사』에 실린 향가의 배경 설화를 통해 향가가 불린 시기를 짐작할 수 있다.⁶²⁾ 배경 설화에 따르면 서동요와 혜성가는 진평왕(재위 579~632년) 시대에 노래로 구송되었다. 6세기 말기와 7세기 초기에 향가가 지어졌음은 향찰식 차자 표기(특히 역상불역하)의 성립 가능성을 암시한다. 그러나 서동요와 혜성가가 창작 당시부터 구송만 되고 문자

58) ‘當^刀와 같이 표기한 아래 첨자는 각필자임을 뜻한다. 이하 같다.

59) 小林芳規는 일본 大谷大學 소장 『판비량론』(8세기 전반 필사, 원효가 55세에 지은 저술)의 ‘根’자에 각필자 ‘ㄷ’가 있다고 판독하고, ‘根’의 훈 ‘뿌리’와 관련지어 해석했다(小林芳規, 2006, 『日本 訓點의 一源流』, 『구결연구』 17, 구결학회, pp.19-20). 김영옥은 『判比量論』의 ‘根’자에 붙은 이 각필자를 ‘^舍’로 전사하고, ‘火^是(불-이)로 읽었다(김영옥, 2004, 『漢字·漢文의 한국적 수용』, 『구결연구』 13, 구결학회; 김영옥, 2008, 『한국어 표기의 기원과 전개 과정』, 『한국문화』 42,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p.178). 그런데 『판비량론』을 정밀하게 조사한 정재영과 권인한은 ‘根’자 옆의 각필자를 찾지 못한 것으로 결론지었다(권인한, 2019, 『大谷大學藏 『判比量論』 角筆點의 언어문화사적 의미』, 『구결연구』 42, 구결학회, p.12). ‘根’자의 훈독 표기 여부는 종결된 것으로 보인다.

60) 백두현, 2020, 앞의 논문, p.51.

61) 백두현, 2018, 『월성 해자 목간의 이두 자료』, 『목간과 문자』 20, 한국목간학회, p.296.

62) 이승재, 2013, 앞의 논문, p.178.

화되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향가의 창작이 향찰식 차자 표기의 성립을 보장하지 못한다.

향가의 문자화 시기를 알려 주는 증거는 원가(怨歌)의 배경 설화에서 찾을 수 있다.⁶³⁾ 효성왕(재위 737~742년)은 즉위하기 이전에 신충(信忠)을 만나 베풀며 바둑을 두다가 그에게 훗날을 언약하였다. 그러나 즉위 이후에 효성왕이 약속을 지키지 않자 신충이 원망의 뜻을 담은 노래를 지어 잣나무에 걸었더니[帖於栢樹(첩어백수)] 잣나무가 누렇게 시들어 버렸다. 이 설화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내용은 노래를 지어 이것을 “잣나무에 걸었다”라는 사실이다. 노랫말을 나무에 걸려면 문자로 적어야 한다. 신충이 스스로 지은 원가의 노랫말을 문자로 표기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향찰식 표기법이 효성왕이 즉위하기 이전(737년 이전)에 일정한 수준으로 발달하지 않았더라면 신충의 문자화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원가의 배경 설화를 통해 우리는 8세기 전기(737년 이전)에 향찰식 표기법이 존재했다고 말할 수 있다. 원가 가사에는 명사의 말음 첨기법을 보여 주는 ‘物叱’(갓), ‘栢史’(갓), ‘秋察尸’(고술)뿐 아니라 연결어미 표기자인 ‘米’(-미)와 ‘乃’(-나), 관형사형 어미 표기자인 ‘尸’(-으)과 ‘隱’(-ㄴ), 조사 표기자인 ‘矣’(-의), ‘叱’(-스) 등의 차자가 쓰였다.⁶⁴⁾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말음첨기법을 포함한 역상불역하 표기 방식은 적어도 8세기 전기(737년 이전)에 존재했다고 추정한다.⁶⁵⁾ 『삼대목』이 편찬된 888년에는 향가가 전면적으로 문자화되면서 역상불역하 등의 향찰식 표기법이 더욱 체계화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향가를 문자로 기록한 시기는 남풍현이 13세기 후반이라고 하였고,⁶⁶⁾ 양희철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한 후 몇 가지 결론을 내렸다.⁶⁷⁾ 이 결론 중에서 필자의 논의에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삼국유사』에서 향가 관련 설화 내용은 거의 고기록의 잔흔을 갖고 있어서 『삼국유사』 소재 향가는 일연 이전의 고기록에서 전사한 것이다. 금석문의 이두에 비추어 볼 때 이두와 향찰의 원리는 6세기에 완성된 것이다.⁶⁸⁾ 『삼국유사』 소재 향가는 균여 향가와 다른 면이

63) 향가의 문자화 문제를 가장 먼저 연구한 분은 홍기문이다. 홍기문은 ‘입으로부터 글로의 발달’이란 소절을 두고 입으로 불리던 향가가 글로 기록된 과정을 논하였다(홍기문, 1956, 『향가해석』, 평양: 과학원(1990, 여강출판사, 김지용 해제 첨부 재출간, pp.50-52)). 『삼국유사』의 향가 중 가장 오래된 혜성가와 서동가가 입으로 노래된 것임을 말하고, 죽지랑가 등이 글로 저작된 증거는 없다고 하였다. 다만 신충이 「잣나무가」(怨歌)를 잣나무에 붙인 것은 글로 저작되었음을 분명히 보여 준다고 했다. 특히 『삼국유사』 권2, 「경문대왕」 조에 왕을 따르던 요원랑, 예흔랑, 숙종랑 등의 화랑이 노래 세 편을 짓자 이를 대거(大姬)라는 중에게 보내어 세 노래를 지으라고 명한 사실에 주목하고, “화랑들이 입으로 지은 것을 대거에게 보내서 글로 지었다는 말이 아닐까?”라고 짐작하였다.

64) 신충이 문자화한 「원가」와 『삼국유사』에 전하는 「원가」의 표기가 서로 같았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 현재의 연구자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에 『삼국유사』 소재 「원가」를 제시하였다.

65) 백두현, 2018, 앞의 논문, p.296.

66) 남풍현, 1981, 「한자·한문의 수용과 차자표기법의 발달」, 『한국 고대문화와 인접 문화와의 관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185.

67) 양희철, 1992, 「향가의 기록 연대와 작가명」, 『인문과학논집』 11, 청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68) 밑줄 친 이 문장에는 오해가 있다. 6세기 금석문 자료에서 향찰식 표기법인 훈주음중(혹은 역상불역하) 표기례를 찾을 수 없

있으며 시대가 더 빠르다. 금석문 이두에서 ‘乙’(목적격조사)이 941년에 처음 등장하는 점으로 보아 「처용가」와 「서동요」를 제외한 『삼국유사』 소재 향가는 최소한 9세기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삼국유사』 소재 향가는 창작 당시의 상한선으로부터 9세기 하한선까지 기록되어 오던 것을 일연이 전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처용가의 ‘東京’은 9세기에 이미 쓰인 것이고, 서동요의 ‘乙’은 경덕왕 대에 이미 쓰인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두 작품의 연대를 확정할 수 없다.⁶⁹⁾ (밑줄은 필자의 것)

위에서 논의된 내용의 요지는 최소한 9세기에는 향가가 문자화되었고, 이것은 『삼대목』의 편찬 연대(888)와 부합한다. 『삼대목』에서 향가가 집대성됨으로써 기존 향가 작품의 문자화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일연대사는 문자화된 이 향가 가사를 보고 『삼국유사』 편찬에 이용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개별 향가 작품이 창작된 당시에 문자화가 이루어졌을 것인가?’라는 것이다. 신충의 「원가」 이외에는 창작 당시의 문자화를 알 수 없다는 것이 이 논의의 한계점이다.

2) 8세기 중엽 화엄경사경조성기에 나타난 역상불역하 표기

화엄경사경조성기(755)에는 한자로 표기한 동사 어간에 활용어미가 결합한 예들이 여러 개 나타나 있다. ‘用弥’(쓰며), ‘齊食弥’(제를 먹으며~제식하며), ‘進在之’(나사겨다), ‘寫在如’(벗기겨다), ‘散弥’(쓰리며), ‘韓畝’(한사) 등은 역상불역하의 원리에 따라 읽은 것이다. 향찰 표기에 흔히 쓰인 어간 표기 혼독자와 어미 표기 음가자의 결합 구성이 화엄경사경조성기에 존재한다. 따라서 8세기 중엽에는 역상불역하의 방법이 완성되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9세기 초(817)에 세운 이차돈순교비에 ‘獸鬪’과 같은 역상불역하 방식의 표기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나타난 것이다. 이차돈순교비의 3~6면에 ‘獸鬪’(염축)이 쓰인 사실은⁷⁰⁾ 역상불역하 방식이 이 비가 세워진 817년⁷¹⁾ 이전에 이미 존재했음을 뜻한다. 이보다 앞선 시기에 향가가 창작되어 문자로 기록되었을 것이고, ‘赫居世’나 ‘尼叱今’이란 표기가 신라 고기(古記)에 존재했을 수 있다.

기 때문이다.

69) 위의 논문, p.44.

70) 박방룡, 2020, 앞의 논문, pp.32-35.

71) 『삼국유사』 권3, 흥법3 원종흥법(原宗興法)에 헌덕왕 9년(817)에 “國統 惠隆과 法主 孝圓·金相郎, 大統 鹿風, 大書省 眞恕, 波珍 滄 金巖 등이 솥사의 옛 무덤을 고치고 큰 비를 세웠다”라는 내용이 있다(박방룡, 2019, 「異次頓 畝人 묘와 사당에 대한 단상」, 『신라문화유산연구』 3, 신라문화유산연구원, p.12). 헌덕왕대(809~825)에 이르러 이차돈의 무덤을 수축하고 묘비와 사당을 건립하는 등 이차돈 현장 사업이 일어났다(위의 논문, p.6).

III.역상불역하의 생성 주체와 배경

1. 음의가(音義家) 학승(學僧)의 불경 주석

고구려와 백제에 비해 신라에는 각종 불전을 연구하여 여기에 주석을 달고 풀이한 음의가 학승⁷²⁾과 이들이 찬술한 불교 문헌이 압도적으로 많다.⁷³⁾ 『한국불교찬술문헌총록』에는 고구려의 학승 승랑(僧朗)과 그가 찬술한 문헌 2종, 백제의 학승 담욱(曇旭)·혜인(惠仁)·도장(道藏)·의영(義榮) 등 4인이 소개되어 있다.⁷⁴⁾ 이에 비해 신라의 학승은 47인이고 찬술 문헌은 수백 종에 달한다. 원광(圓光)이 찬술한 문헌 2종, 혜장(惠藏)이 찬술한 문헌 5종, 원측(圓測) 찬술 문헌 19종, 신방(神昉) 찬술 문헌 9종, 원효 찬술 문헌 86종, 의상(義湘) 찬술 문헌 6종, 경흥(憬興)⁷⁵⁾ 찬술 문헌 40종, 지인(智仁) 찬술 문헌 5종, 영인(靈因) 찬술 문헌 3종, 순경(順璟)⁷⁶⁾ 찬술 문헌 4종, 도증(道證) 찬술 문헌 13종, 승장(勝莊) 찬술 문헌 7종, 현일(玄一) 찬술 문헌 10종, 지통(智通) 찬술 문헌 2종, 의적(義寂) 찬술 문헌 25종, 도륜(道倫) 찬술 문헌 18종, 혜초(慧超) 찬술 문헌 3종, 태현(太賢) 찬술 문헌 52종 등 많은 학승이 수많은 논소(論疏)·장소(章疏)·석문(釋文) 등을 찬술했다.

박용진은 신라의 학승이 찬술한 35종 화엄장소의 목록과 학승별 찬술 부수를 표로 정리하였다.⁷⁷⁾ 이 표에 실린 신라 학승은 가귀(可歸), 도신(道身), 명효(明晷), 범여(梵如), 연기(緣起), 원효(元曉), 의상(義相), 의융(義融), 지통(智通), 진승(珍嵩), 태현(太賢), 표원(表員)이다. 신라 화엄학과 불경 연구가 크게 융성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려본 『화엄경』 권말에 부재된 음의⁷⁸⁾는 신라의 화엄학을 이룩한 학승들의 연구 성과를 이어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권인한은 신라 고승(원측, 순경, 경흥, 태현)의 주석이 일본 승려 증산이 찬한 묘법연화경석문에 인용된

- 72) 불교 경전을 이해하기 위해 경전 문장의 한자 음과 뜻을 주석한 승려를 ‘음의가 학승’이라 칭한다.
- 73) 신라에 불경을 주석하거나 논소(論疏) 저술자가 많은 까닭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장기간 존속한 점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백제와 고구려는 끊임없는 전란을 치르다가 7세기 중엽에 멸망해 버렸다. 학문은 평화로운 시기에 융성한다. 신라에서 음의가 학승이 압도적으로 많은 까닭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여 장기간 융성한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 74)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1976, 『한국불교찬술문헌총록』, 동국대학교 출판부, pp.3-93.
- 75) 『삼국유사』에 경흥은 속성이 수씨이고, 웅천주(公州) 출신인데 18세에 출가하여 삼장(三藏)에 달통하여 명망을 크게 떨쳤다고 한다(『한국불교찬술문헌총록』 40-41).
- 76) 순경은 신라에서만 공부하여 당나라 현장의 유식론을 깨달아 스스로의 학설 ‘決定相違不定量’을 세우고, 4종의 논서를 지었다(『한국불교찬술문헌총록』 51-52). 권인한은 남풍현(2003, 「신라승 순경과 경흥의 법화경 주석서에 대하여」, 『구결연구』 10, 구결학회, p.33)과 김상현 선생의 연구를 인용하여 순경이 7세기 중반부터 8세기 초기에 걸쳐 활동했으며, 『法華經料簡』(1권), 『大毘婆沙心論抄』(10권), 『成唯識論料簡』(1권), 『因明入正理論抄』(1권)을 지었으나 전해지지 않음을 밝힌 바 있다(권인한, 2022, 『妙法蓮華經釋文』으로 본 통일신라의 한자 문화, 『영남학』 79,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pp.150-151).
- 77) 박용진, 2019, 「고려 의천 찬 『신편제종교장총록』과 동아시아의 화엄 장소(章疏)」, 『신편제종교장총록 수록 문헌 총람』, 고려대장경연구소, p.219.
- 78) 이승재는 고려의 재조본 『화엄경』 권말에 실린 음의(音義)의 기원을 거란본 『화엄경』, 『법화경』 등과 비교 검토하고, 『화엄경』의 音義는 11세기 말엽의 고려본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 것임을 밝혔다(이승재, 2010, 「재조본 『화엄경』에 附載된 권말 音義의 기원」, 『진단학보』 109, 진단학회). 고려본 『화엄경』의 음의는 한자의 음에 대한 정보를 반절법 혹은 직음법으로 기술한 내용이다.

사실을 논하며, 7세기 중반~8세기 초엽에 통일신라의 한자 문화가 상당한 경지에 도달했음을 밝혔다.⁷⁹⁾ 경전을 논하고 주석하는 작업은 문자를 다루는 일이니, 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한자의 음훈으로 신라어를 표기하는 방법을 찾아냈을 것이다. 일본에 전해지는 『화엄경』, 『판비량론』 등 신라 학승들이 편찬한 경전에는 한자와 한문구의 뜻을 풀이한 주석 이른바 석명(釋名)과, 한자의 음가를 반절법 혹은 직음법(直音法)으로 표기한 각필자가 씌어 있다. 경전의 권말에는 난해한 한자를 별도로 모아 주석을 붙이거나, 『화엄경』처럼 별도의 권책으로 음의석(音義釋)을 묶어서 붙인 사례도 있다.

남풍현은 일본 동대사 소장 신라 화엄경에 ‘良’자의 초서자를 비롯하여 각필자 ‘占 白 乃 叱 沙 目 彡 毛 刀 自’가 출현함을 말하고 각 각필자의 기능을 논하였다.⁸⁰⁾ 특히 ‘言’에 붙은 ‘白’자 등 여러 훈독 부호가 기입되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정재영은 동대사본 화엄경에 기입된 각필자 구결, 성점 표시 부호, 교정에 사용된 삭제 부호, 단어나 구절을 표시하는 합부선, 범패보(梵唄譜) 등을 밝혀 기술했다.⁸¹⁾ 동대사 소장 화엄경의 ‘或’(49, 51행)에 붙은 각필자 ‘刀’(도)또, ‘乃’(167행)에 붙은 각필자 ‘沙’(부사 ‘사), ‘說’(167행)에 붙은 각필자 ‘乃伊’(*나이-)⁸²⁾는 전훈독자 용례들이다.⁸³⁾ 용언 어간을 음가자로 표기한 훈독 각필자의 예들은 동대사본 화엄경(740년경 필사된 신라 사경)에 다수 나타나 있다. 이 자료에는 격조사, 연결어미, 말음첨기자 등 다양한 문법형태가 각필되어 있다.⁸⁴⁾

小林芳規에 따르면 일본에서 각필 부호는 10세기 이후에야 사용되기 시작했다.⁸⁵⁾ 따라서 일본 大谷大學 박물관 소장본 『판비량론』의 각필 부호는 8세기 전기의 신라 학승에 의해 기입된 것으로 본다. 김영석은 일본 미츠이 기념미술관 소장본 『판비량론』에 ‘ㄹ’, ‘ㅁ’ 등 해독 가능한 21자와 해독이 어려운 17자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⁸⁶⁾ 권인한은 『판비량론』의 각필점들을 각필자(角筆字), 성점(聲點), 범패부(梵唄符), 합부선(合符線)으로 분류하고, 차자표기는 물론 한자음과 범패창 연구의 측면에서 이 문헌이 갖는 가치를 논하였다.⁸⁷⁾ 『판비량론』의 ‘當’에 붙은 각필자 ‘只’는 부사 ‘當’이 훈독된 것임을 뜻한다.⁸⁸⁾ 또한 ‘言’에 붙은 각필자 ‘白’은 ‘言’이 동사 ‘숯-’으로 훈독되었음을 보여 준다.⁸⁹⁾ 『판비량론』에서 ‘餘’의 각필자 ‘多留’가 ‘餘’의

79) 권인한, 2022, 앞의 논문.

80) 남풍현, 2013, 「東大寺 소장 신라화엄경 사경과 그 석독구결에 대하여」, 『구결연구』 30, 구결학회.

81) 정재영, 2014, 「신라 사경에 대한 연구」, 『구결연구』 33, 구결학회, pp.112-113.

82) 남풍현은 ‘乃(伊)’를 “부처님이 말하다”라는 의미의 동사로 보았다(남풍현, 2013, 앞의 논문, p.67). ‘乃伊(나이-)내-’는 부처님이 말하는 행위를 특별하게 표현한 동사라는 것이다. 말하는 행위는 입으로 음성을 ‘내’ 행위이다.

83) 권인한, 2019, 앞의 논문, p.19.

84) 구결학회 월례연구발표회(2023.4.22)에서 권인한 교수가 발표한 「동대사 화엄경 각필 자료집 각필점 색인」을 참고하였다.

85) 小林芳規, 2006, 앞의 논문, p.18.

86) 김영석, 2017, 「원효 『판비량론』의 새로운 발굴-고토미술관 및 미츠이기념미술관 소장본을 중심으로」, 『불교학보』 81,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p.100.

87) 권인한, 2019, 앞의 논문.

상성과 거성이 서로 섞이는 상거상훈(上去相混)의 단초를 찾을 수 있는 점, 범패창의 기원을 밝히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본 점도 학계의 관심을 끈다.

88) 위의 논문, p.10·p.18.

문맥적 의미 '다르-'를 뜻하는 전훈독자 표기라면⁹⁰⁾ 용언 어간을 음가자로 표기한 특이례가 된다. '中'자의 오른쪽 아래[右下]에 기입된 각필자 '良'의 초서자는 처격조사 '-아'를 표시한 것이다.⁹¹⁾

8세기 전기 자료인 일본 동대사 소장 『화엄경』에는 '或[刀](*도)또'(49, 51행), '乃[沙]'(사부사)(167행), '說[乃](*나이-) 등과 같이 한자 우측에 기입된 전훈독자 용례들이 있다.⁹²⁾ 또 일본에 전해지는 『화엄문의요결문답』의 여러 이본들 중 伊藤本(사토본)과 延曆寺本(연력사본)은 8세기 사본인데, 사토본에는 부호구결과 석독지시부호, 교정부호, 구두 표시 등이 있으며, 이들은 신라의 구결을 그대로 옮겨 적었을 가능성이 크다.⁹³⁾

신라의 학승들은 한자의 음과 석, 난해구를 밝혀 풀이하는 작업을 통해 언어와 문자를 분석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키웠고, 이 능력은 신라어를 표기해 내는 힘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이 힘을 바탕으로 신라에서 다수의 불교서가 저술된 것이다. 7세기 후기에 활동한 원효(617~686)는 불교학을 크게 진작시켰다. 이것이 이어져 7세기 중반~8세기 초엽에 활동한 원측(圓測 613~696), 순경(順憬)⁹⁴⁾, 경흥(憬興), 태현(太賢)은 묘법연화경 등 불경을 주석하였고, 이것이 일본 법상종의 학승 중산(中算)이 지은 『묘법연화경석문』(妙法蓮華經釋文)에 인용되었다.⁹⁵⁾ 권인한은 네 분의 학승이 행한 44개 한자 주석을 적출하여, 이를 자형주(字形註), 자음주(字音註), 자의주(字義註), 기타주로 분류하였다.⁹⁶⁾ 이들이 행한 주석에는 반절법으로 한자음을 풀이한 것, 『설문해자』와 『옥편』 등을 인용하여 한자음과 뜻을 풀이한 것 등이 있다.⁹⁷⁾ 경흥과 순경은 한자학에 밝았으며, 특히 순경의 주에는 학문적 자신감과 깊이가 드러나 있다.⁹⁸⁾

이러한 고찰을 통해 7세기 중반~8세기 전기에 활동한 학승들의 한문자 지식과 이해 수준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음의가 학승들의 주석 작업은 한문자에 대한 지식을 심화시켜 한자의 음훈으로 역상불역하와 같은 차자법을 창안해 내는 동력이 되었을 것이다. 필자는 역상불역하의 원리를 창안해 낸 주체는 불경을 주석하고 논소를 저술한 음의가 학승이라고 판단한다. 이두 문법형태가 가장 발달한 수준으로 표기된 화엄경 사경조성기는 승려가 지은 글이다. 이두가 풍부하게 표기된 화엄경사경조성기는 8세기 중엽의 승려가 높

89) 위의 논문, p.18.

90) 위의 논문, p.19.

91) 이 각필자는 동대사본 화엄경에서 호격조사 '-아', 연결어미 '-아/어' 자리에도 쓰였다(위의 논문, p.10).

92) 위의 논문, p.19.

93) 정재영 2009, 「『화엄문의요결문답(華嚴文義要決問答)』에 대한 문헌학적 연구」, 『구결연구』 23, p.62.

사토본 『화엄문의요결문답』의 부호구결과 문법형태에 대한 연구는 박용식, 2010, 「佐藤本 『화엄문의요결문답(華嚴文義要訣問答)』의 부호구결과 8세기 신라의 문법 형태」, 『구결연구』 24, 구결학회와 안대현, 2013, 「佐藤本 『화엄문의요결문답(華嚴文義要訣問答)』과 고대 한국어의 '△/矣」, 『구결연구』 31, 구결학회를 참고하기 바란다.

94) 순경은 7세기 중반부터 8세기 초에 걸쳐 활동하였고, 경흥은 7세기 후반기, 태현은 경덕왕 대에 활동하였다(권인한 2022, 앞의 논문, pp.150-151).

95) 권인한, 2022, 앞의 논문.

96) 위의 논문, pp.138-164.

97) 위의 논문, p.159·p.161.

98) 위의 논문, p.166.

은 수준의 이두문 작성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2. 문척(文尺)의 기록 문서 작성

신라에는 ‘尺’을 붙여 표시한 전문 기능인과 관련 직제(職制)가 있었다. 노중국은 ‘尺’이 쓰인 금석문의 용례를 모두 적출하여 ‘尺’이 ‘尺’으로 변해간 표기 변화의 과정, 기술직을 가리키는 것으로 변한 ‘尺’의 의미변화와 사회적 지위의 하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한 바 있다.⁹⁹⁾ 『삼국사기』 권32, 「樂條」(악조)에 고기(古記)를 인용하여 정명왕(政明王=신문왕, 재위 681~692년) 9년에 설행된 주악(奏樂)의 악공 구성원을 기술해 놓았다. 이 기사에 악공을 가척(笳尺), 무척(舞尺), 금척(琴尺), 가척(歌尺)이라 칭하고, 그 말미에 “신라 때 악공을 모두 ‘척(尺)이라고 불렀다(羅時樂工皆謂之尺)”라고 하였다. 이 기사에 이어진 고구려와 백제 음악의 주악 구성원 직명에는 ‘척(尺)’이 사용되어 있지 않다. 전문 직명 표기의 ‘척(尺)’은 신라 특유의 것임을 알 수 있다. ‘文尺’은 문서 작성을 맡은 전문 기술 직명이자 공적 문서 작성자를 가리킨다. ‘文尺’은 신라 특유의 문서를 작성했으며, 이들의 문서화 작업은 이두 표기를 발달시켰다. 6~8세기의 신라 금석문과 목간의 이두문은 文尺이 작성한 것이 많다.

6세기 신라의 금석문과 목간문은 분쟁이 된 사건을 처결하고 그 경위를 기록한 것, 상위자에게 올리는 보고 문서, 수취 관련 집꼬리표 등 여러 가지 형식에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금석문과 목간문에는 문서 작성자의 직명과 이름이 나타나 있다. 금석문의 경우, 문장 작성자를 가리킨 직명이 ‘書人’(봉평비 등), ‘文人’(무술오작비), ‘書寫人’(명활산성작성비), ‘文尺’(남산신성비 제1·2·3·9비), ‘書尺’(남산신성비 제4비) 등 서로 다르게 쓰여 있다. 목간문의 경우, 6세기 자료인 월성해자목간에는 ‘文尺智’(월성해자2018-6), 주공지목간에는 ‘文人’이 문서 작성자로 기록되어 있다.¹⁰⁰⁾ ‘文人’은 한문식 한자어이고, ‘書寫人’과 ‘書人’ 역시 그러하다. 그러나 ‘文人’(글 지은 사람)은 한국어 어순으로 구성된 합성어이다. ‘文尺’과 ‘書尺’은 신라에서 조어한 이두식 한자어이다. ‘文尺’ 등의 ‘尺’은 전문 기능인을 뜻한 접미사로 쓰인 것이다.¹⁰¹⁾ 성산산성목간에는 ‘文尺’과 ‘文尺伊’라는 인명 표기가 나타나는데¹⁰²⁾ 이들은 ‘글’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

국가의 공무를 처리한 후 그 내용을 문서로 기록하는 전통은 고대 삼국에서 큰 차이가 없었던 듯하다. 그런데 현전 금석문 자료 혹은 문헌 자료에는 신라에 관한 자료가 압도적으로 많다. 삼국이 공존했던 6세기의 금석문 자료를 보면 신라의 것이 가장 많다. 국가의 축성 사업을 기록한 문서의 경우, 신라의 남산신성비(1비~10비) 및 명활산성비처럼 축성자 및 작업 내역을 자세히 적은 사례는 고구려와 백제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고구려의 6세기 평양성 각자 성석(平壤城 刻字 城石) 5건이 있으나 축성을 맡은 지역과 거리 정

99) 노중국, 2001, 앞의 논문.

100) 백두현, 2018, 앞의 논문, pp.291-292.

101) 예컨대 무술오작비의 ‘大工尺仇利支村壹利刀兮’에서 ‘대공척’은 ‘塙’(수리시설의 둑)를 축조한 공사 감독관을 뜻한다. 안압지 출토 명활산성비(551)의 ‘大工尺仇兮’에도 ‘대공척’이란 직명이 보인다.

102) 백두현, 2020, 앞의 논문, p.46에서 ‘陽村文尺(43-1)’, ‘及伐城文尺伊(148-1)’, ‘及伐城文尺(只)稗石(214-1)’을 언급한 바 있다.

도만 표기되어 있을 뿐이다.¹⁰³⁾ 신라의 남산신성비에는 축성에 참여한 주요 인물의 출신지, 관등, 이름이 나열되어 있고, 이들에게 ‘위문교령(爲聞敎令)하고 삼 년 내에 붕파되면 죄를 받는다고 맹서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신라의 남산신성비가 문서 형식을 띤 서약문이고, 고구려의 평양성 각자 성석은 축성 참여자와 거리만 간략히 적은 기록문이다. 남산신성비에는 축성 작업 내용과 책임 소재를 말로 알려 주고, 이를 둘에 새긴 내용이 있다. 남산신성비의 이 방식은 작업 내용을 작업자의 마음에 각인시키는 데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분쟁이 된 사건의 처리 결과를 기록한 증성리비, 냉수리비, 봉평비 등은 문서화가 신라의 통치 행위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었음을 말해 준다. 신라 특유의 문척들은 축성 작업 등 국가적 사업과 통치에 필요한 문서를 작성하였고, 국가의 통치 행위를 기록한 문서 작성 실무자 문척을 둔 이 제도는 한문자의 신라적 변용을 가능케 한 토대가 되었을 것이다.

3. 설총의 유교 경서 훈해(訓解)

음의가 학습뿐 아니라 유교 경서를 훈해한 설총도 차자법(특히 구결)의 발달에 기여했다고 본다. 설총의 경서 해석과 관련된 주요 기록은 다음 두 가지이다. ① “방언으로 아홉 경서를 읽어 후생을 훈도하였으니, 지금까지 학자들이 그를 종주로 여긴다(以方言讀九經 訓導後生 至今學者宗之)”(『삼국사기』 권46, 열전6 강수 최치원 설총). ② “방음(方音)으로 화이(華夷)의 방속(方俗)과 명물(名物)을 두루 깨우쳐 육경(六經)을 훈해(訓解)하였다(以方音通會華夷方俗物名 訓解六經文學)”(『삼국유사』 권4, 원효불기元曉不羈). 두 기록은 설총이 구경 혹은 육경 문학¹⁰⁴⁾을 신라어로 풀이했음을 말하고 있다. 설총이 한문 경서와 문학을 신라어로 풀이했다는 것은 차자법의 성립을 전제한다.

그런데 설총의 경서 훈해가 구두 강론에 그친 것인가? 훈해한 결과를 문자화하였을까? 이 질문은 차자 표기의 발달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 만약 후자였다면 설총의 경서 훈해는 신라어로 경서를 번역 표기한 것이 된다. 이 작업에는 음가법과 훈독법이 모두 필요하고, 역상불역하의 방법도 이용되었을 듯하다. 그러나 훈해 결과의 문자화 여부는 알 수 없는 것이어서 추론 이상으로 나아갈 수 없다. 불교 경전과 달리 설총의 경서 훈해는 어떤 자료도 남기지 않았다. 따라서 설총의 경서 훈해가 차자법 발달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

103) 여호규, 2011, 「고구려의 한자문화 수용과 변용」, 『동아시아의 문자교류와 소통』, 동북아역사재단과 기경량, 2017, 「평양성 출토 고구려 각자 성석의 판독 및 위치 재검토」, 『사학연구』 127, 한국사학회에 판독문과 이에 대한 설명이 있다. 제3석과 4석의 각문은 다음과 같다.

제3석: 己丑年三月廿一日 自此下向西下二里 內中百頭 上位使 尔丈 作節矣 (569년)

제4석: 丙戌十二月 中 漢城下後 小兒 文達 節自此西北行涉之 (566년)

104) 구경(九經)은 한대(漢代)의 오경(五經)인 주역·상서·모시·예기·춘추좌씨전에 주례·의례·춘추공양전·춘추곡량전을 더한 과목이다. 당나라 유학생들에게 부과한 이 아홉 과목을 唐九經(당구경)이라 부른다(황위주, 2016, 한문의 수용과 창작 활동, 『신라의 언어와 문학』,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연구총서 16, 경상북도, p.307; 이장희, 2018, 신라어 표기 발전과 설총의 공헌, 『설총과 문자 그리고 신라의 유학』, 삼성현역사문화관 학술총서 2, p.208). 六經文學(육경문학)은 중국 춘추 시대의 여섯 가지 경서(經書) 역경, 서경, 시경, 춘추, 예기, 악기(樂記)를 가리킨다. 악기 대신 주례를 넣기도 한다.

로 논할 수 없다. 구두에 그친 것이든, 문자화까지 나아간 것이든 간에 설총의 경서 훈해는 유교 경서를 신라어로 표현해냄으로써 차자법의 발달과 유교 사상의 확장에 기여했을 것이다.

4. 구송 가요인 향가의 창작과 문자화

신라에는 고구려와 백제에 없는 도솔가라는 노래가 있었다. 유리니사금(재위 24~57) 1년(기원후 24년) 기사에 “(이때부터) 도솔가를 짓기 시작했으니 차사(嗟辭=감탄어)가 있는 사뇌격이다.”¹⁰⁵⁾라는 내용이 있다. 한편 『삼국사기』에는 유리니사금 5년(기원 후 28년) 11월에 왕이 나라를 순행하면서 굶주려 얼어 죽게 된 노파를 보고 스스로의 부덕함을 탄식하고, 홀아비·과부·병자·늙은이에게 양식을 주니 민속이 즐겁고 편안해져 처음으로 도솔가를 지었고, 이것이 가악(歌樂)의 시초가 되었다는 기록이 있다.¹⁰⁶⁾ 두 사료의 기록은 유리니사금 재위 초기에 도솔가라는 가요가 지어져 구송되었음을 알려 준다.

『삼국유사』 권5(경덕왕 19, 760년)의 「월명사도솔가」에 월명사가 지은 도솔가와 제망매가가 실려 있고, 그 끝에서 “신라 사람들은 향가(鄉歌)를 숭상한 자가 많았으니 이것은 대개 시(詩)나 송(頌)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따금 천지와 귀신을 감동시킨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하였다. ‘鄉歌’라는 용어가 여기에 처음 등장한다.¹⁰⁷⁾ 일연대사는 월명사가 지은 노래가 ‘산화가’가 아니라 ‘도솔가’라고 밝혔으니¹⁰⁸⁾ 향가는 유리니사금 이래 지어 부른 도솔가의 전통을 이은 것으로 보인다. 월명사가 경덕왕에게 아뢰는 말 중에 “신승(臣僧)은 국선(國仙)의 무리에 속해 있는지라 오직 향가만 알고, 범성(梵聲)은 모릅니다.”라고 하니, 왕이 “향가를 씬도 가하다.”라고 답한 내용이 있다. 월명사는 국선(=화랑) 무리를 가르치는 스승이었고, 국선의 무리들이 향가를 짓고 노래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현전 향가에 승려가 지은 것과 화랑의 덕을 사모하는 작품(찬기파랑가, 모죽지랑가 등)이 있음은 향가의 창작과 구송 주체가 승려와 화랑이었음을 뜻한다.

그런데 향가는 기본적으로 구송 가요여서 입에서 입으로 전파된 것으로 보인다. 서동이 선화공주에 관한 노래를 지어 아이들에게 가르쳐 퍼뜨렸고, 원효대사가 “누가 자루 없는 도끼를 내게 빌려주려는가. 나는 하늘을 떠받칠 기둥을 찍으리라.”¹⁰⁹⁾라는 노래를 지어 세상에 퍼뜨린 것은 구송 전파의 사례이다.

구송 가요인 향가를 언제부터 문자로 표기하여 문서화했는지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 효성왕(孝成王, 재

105) 『삼국유사』 권1, 紀異, “第三駕禮王朴駕禮尼師今[一作儒禮王] (…중략…) 始作兜率歌, 有嗟辭, 詞腦格.”

106)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 유리니사금 5년, “五年, 冬十一月, 王巡行國內, 見一老嫗飢凍將死曰 (…중략…) 仍命有司, 在處存問 餓寡孤獨老病不能自活者, 給養之. 於是, 隣國百姓, 聞而來者衆矣. 是年, 民俗歡康, 始製兜率歌. 此, 歌樂之始也.”

107) 『삼국사기』에는 ‘鄉歌’가 전혀 쓰이지 않았다. 양주동은 ‘사뇌가(詞腦歌)’의 ‘詞腦’는 ‘시니’를 표기한 것이며, ‘시니’의 ‘시’는 ‘東’의 뜻이고, ‘東’은 곧 동쪽 나라인 신라를 의미하므로 ‘시니’는 결국 ‘東土’의 뜻이라고 하였다. ‘鄉歌’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풀이하였다(양주동, 1965/1983, 앞의 책, pp.33-65). 사뇌가는 곧 향가임을 논증한 것이다.

108) “臣僧但屬於國仙之徒, 只解鄉歌, 不聞梵聲,” 王曰: “旣卜緣僧, 雖用鄉歌可也.” 明乃作兜率歌賦之. 이 기사에는 “지금 세간에서는 이를 산화가라고 하지만 잘못이다. 마땅히 도솔가라고 해야 할 것이다. 산화가는 별도로 있는데 그 글은 많아서 신지 않는다.”(今俗謂此爲散花歌, 誤矣, 宜云兜率歌. 別有散花歌, 文多不載.)라는 내용도 있다. 월명사가 지은 향가 이름이 ‘산화가’가 아니라 ‘도솔가’라고 말한 것이다.

109) 『삼국유사』 권4, 義解, “元曉不羈誰許沒柯斧, 我斫支天柱.”

위: 737-742년) 때 신충(信忠)이 지은 「원가」(怨歌)의 배경 설화에 신충이 이 노래를 지어 잣나무에 걸었다 (帖於栝樹)고 하였으니, 효성왕 즉위 이전(737년 이전)에 향찰식 표기법이 존재했음은 분명하다. 향가를 전면적으로 집성한 『삼대목』(888)을 편찬하면서 향찰 표기법은 더 정비되었을 것이다.¹¹⁰⁾

IV. 요약과 해석

1. 역상불역하의 생성 과정과 시기

신라 사람들은 한문자와 외래 문명을 학습하고 수용함에 있어서 그것을 내면화하여 고유의 방식을 만들었으며, 여기에 창의적 변용을 더하였다. 이 과정(process)을 <학습⇒내면화⇒창의적 변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역상불역하는 끝에 놓인 창의적 변용에 속한다. 한자의 음훈을 빌린 차자표기법이 내면화되는 과정에서 한자의 훈을 이용하여 고유어를 표기하는 방법이 역상불역하보다 먼저 고안되었다. 6세기의 천전리서석 추명(525)과 적성비(551?)에 쓰인 ‘波玠干支’(海干)의 ‘波玠’은 ‘바돌’로 읽는다. ‘波玠’(바돌)은 고유어 ‘바돌’ (海)를 ‘음가자+훈가자’로 표기한 것이다. 6세기 금석문에 나오는 부명 ‘沙喙’과 ‘喙’은 고유어 ‘뚫~뚫 ~달’을 표기하기 위한 음가자이다. 『삼국사기』에서 ‘喙部’를 ‘梁部’로, ‘沙喙部’를 ‘沙梁部’로 고쳐 표기한 것은 ‘梁’의 훈 ‘뚫’을 이용하여 신라식 조자(造字) ‘喙’을 대체한 것이다. 이런 예들은 신라어를 표기하려는 차자법의 내면화 과정에서 생성된 것이다. ‘波玠’(바돌)은 혼독법이 생성되는 과정의 초기 단계에 만들어진 것이다.

안압지목간의 ‘加火魚(가화어) 助史(조사)’를 ‘가불어 짓’으로 해독한다면 ‘加火魚(가불어)는 혼독법이 어중에 들어간 특이례가 되어 문제가 있다. ‘助史’를 ‘짓’으로 읽고, ‘助史’와 교체되는 문맥에 쓰인 ‘醢’(젓갈 해)는 고유어를 한역한 것이다. 안압지목간에 함께 쓰인 ‘助史(젓)-醢’는 고유어의 음가자 표기와 한역 표기가 공존한 것이며, 혼독법이 생성되기 이전 단계를 반영한다.

8세기 초기 자료인 황복사석탑금동사리함명(706)의 ‘韓畬’와 ‘韓奈麻’ 그리고 화엄경사경조성기(755)에 공존하는 ‘大畬’와 ‘韓畬’는 ‘大’를 ‘한’으로 혼독한 증거이다. 향가에서 어간과 어미가 결합한 구성은 역상불역하의 방법으로 표기되어 있다. 따라서 향가의 문자화 기록을 근거로 역상불역하가 성립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신충이 지어서 잣나무에 걸었다고 하는 원가(怨歌)(737년 이전의 창작)는 737년 이전에 역상불역하가 존재했음을 함의한다. 향가를 집성한 『삼대목』(888) 편찬은 역상불역하가 확립되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화엄경사경조성기에 쓰인 ‘用弥(쓰며), ‘散弥(쓰리며), ‘進在之(나사겨다), ‘寫在如(벗기겨다) 등은 어간

110) III장에서 논한 네 가지 사항 이외에 신라 특유의 어휘 표기에 나타난 고유성도 역상불역하의 생성 배경으로 간주할 수 있다. 신라인은 국명(斯盧, 斯羅 등), 육촌명(珍支村, 高耶村 등), 육부명(梁部, 沙梁部, 本彼部 등), 왕칭어(赫居世, 次次雄, 麻立干 등), 관등명(舒發翰, 逆滄, 波玠滄 등)의 표기에 신라 고유어를 반영하였다. 국가 제도와 관련된 주요 어휘의 표기에 고유어를 반영해 온 이러한 노력과 전통이 역상불역하라는 차자법을 생성한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생략한다.

표기 혼독자와 어미 표기 음가가 결합한 구성이다. 이 구성은 역상불역하에 해당한다. 화엄경사경조성기가 작성된 755년 이전에 역상불역하의 방법이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8세기 중엽에는 역상불역하의 방법이 확립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차돈순교비(817년)의 獸羈(염축)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생성된 것이다.

‘波弥’, ‘喙部’와 ‘梁部’, ‘加火魚 助史~醢’, ‘大舍~韓舍’의 교체, ‘大奈麻~韓奈麻’의 교체 등에서 신라 고유어를 표기하기 위해 한자의 음과 훈을 빌린 차자법 발달 과정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차자 표기를 통해 신라어 표기 경험이 축적되었고, 이 경험은 통일신라시대에 활동한 음의가 학생들이 불교 경전을 주석하면서 획득한 언어와 문자 관련 지식(반절법 등)과 결합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역상불역하 표기법이 생성되었고, 그 시기는 8세기 초기로 추정되지만 7세기 후기로 거슬러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2. 역상불역하의 생성 주체와 생성 배경

한문자의 <학습⇒내면화⇒창의적 변용>의 작업 과정에는 실천하는 행위 주체가 있어야 한다. 불경에 주석을 달고, 논소 등을 저술하며 문자에 대한 지식을 획득한 음의가(音義家) 학생들이 한자의 음훈을 이용한 차자법 발달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 7세기 중반~8세기에 음의가 학승(원축, 순경 등) 수십 명이 활동하였고, 이들은 다수의 불경 논소와 주석을 편찬하였다.¹¹¹⁾ 논소와 주석 작업의 상당 부분은 한자, 한문구, 한자음에 대한 풀이(釋名)이다.

음의가의 주석 중에는 한자음을 반절법으로 표기한 것이 있다. 하나의 한자음을 성모자와 운모자로 나누어 표기하는 것이 반절법이다. 예컨대 ‘東’(동)의 음을 ‘德’(성모 ㄷ)과 ‘紅’(운모 ㄹ)으로 나누어 표기하는 것이다. 이분법이라는 점에서 반절의 음가 표시 방식은 ‘역상불역하’의 이분법과 같다. ‘역상불역하’의 이분법 원리는 반절법의 이분법을 신라어 표기에 알맞도록 변용(變容)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반절법의 상자(上字)와 하자(下字)는 모두 음을 표상한 것이다. 그러나 역상불역하에서 상자는 뜻을 나타내고, 하자는 음을 나타낸다는 점이 반절법과 다르다. 역상불역하는 반절법의 창의적 변용이라고 할 만하다.

승려들은 불교 주석서를 저술했을 뿐 아니라 향가도 창작하였다. 승려가 지은 향가 작품이 있고, 향가집 『삼대목』의 편찬 주체는 대구화상이었다. 음의가 학생들은 역상불역하와 수서자지편(隋書者之便)뿐 아니라 어간말 자음 혹은 어간 말음절을 표기한 말음(절)첨기법을 창안해 냈다. 찬기파랑가에 나온 ‘雲音’(구름)의 ‘音’은 음절말 자음 ㅁ을 표기한 것이고, ‘汀理’(물시브리)와 ‘川理’(나리)의 ‘理’는 ‘물시브리’와 ‘나리’의 음절 말음 ‘리’를 표기한 것이다. 말음첨기법은 역상불역하의 ‘불역하’와 연관되어 있다. ‘불역하’에 해당하는 차자가 ‘역상’에 해당하는 한자 훈의 말음을 표기하는 것이 말음첨기법이다. 신라의 학생들은 역상불역하의 방법을 창안하고, 이것을 더 정교하게 발전시킨 말음(절)첨기법까지 만들어 냈다. 역상불역하, 수서자지편, 말음첨기법과 같은 차자법은 한어(漢語) 성운학에 관한 지식을 신라어 표기를 위해 창의적으로 변용한 것이다.

역상불역하 원리는 음독법과 음가법, 혼독법과 훈가법과 결합하여 향가를 기록한 수단이 되었다. 향가

111) 이들이 편찬한 글 중의 일부(판비량론, 화엄문의요결문답 등)가 일본으로 건너가 필사본으로 전해지고 있다.

는 역상불역하의 원리가 작동할 수 있는 마당을 제공한 셈이다. 향가 표기를 통해 역상불역하 원리를 포함한 음차법과 훈차법이 더욱 정련된 표기 체계로 발달할 수 있었다. 축성 작업 등 주어진 과업을 보고하고 기록한 이두 문서만 있었다면 신라의 차자법은 정밀한 수준으로 발달하지 못했을 것이다. 역상불역하 원리가 창안됨으로써 신라어의 문자화가 가능해졌고, 구송된 향가의 노랫말을 문자화할 수 있었다.

신라의 월성해자목간(149호)과 백제의 능산리목간(4면 목간)에 기록된 문서에는 문장 종결사 뒤에 빈칸이 있고, 이 빈칸은 구두와 같은 기능을 하며 차자 표기를 발전시키는 기초가 되었다고 본다.¹¹²⁾ 비문과 목간문 등의 문장을 지은 신라의 문척(文尺)은 문서 작성에 필요한 이두어를 만들고, 상위자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기 위해 ‘賜’, ‘白’, ‘在’ 등의 차자를 발전시키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 6~8세기의 비문과 목간문을 작성한 문척들은 문서 작성에 필요한 이두를 발전시킨 주역이었다.

유교 경서를 공부한 유학자를 대표하는 인물은 설총과 강수이다. 설총은 경서를 혼해함으로써 신라어로 표현된 구결 현토의 발전에 기여했다. 화랑은 향가의 창작 혹은 향유와 관련되어 있다. 원광법사가 세속오계를 만들어 화랑도의 행동 규범을 제시했고, 화랑도는 집단을 이루어 경서와 풍류도를 배웠으며, 이들의 교육 과정에 향가가 이용되었다. 화랑도 교육은 백제와 고구려에 없는 신라 특유의 청년 교육 제도였고, 향가 역시 신라 특유의 것이다. 화랑은 경서를 학습하고 향가를 짓거나 부른 행위자 역할을 했을 것이다.

역상불역하의 차자 표기법은 신라 특유의 것으로 불경의 주석 작업을 행한 음의가 학습이 중심이 되어 발전시킨 차자법이었다. 그리고 문서 행정의 주체였던 문척, 향가의 창작과 향유에 참여한 승려와 화랑, 유교 경서를 신라말로 풀이한 설총 등이 신라의 차자표기법 발전에 기여하였다.

3. 차자표기에서 역상불역하가 갖는 의의

역상불역하는 인명과 지명, 향가 표기에 적용됨으로써 차자표기법 발달의 기본 원리로 작용하였다. 역상불역하의 원리는 한자를 빌려 한국어 문장을 표현하는 데 유용한 장치였다. 한국어 문장은 체언 어간+조사, 용언 어간+어미의 구성을 가지며 어간부는 의미부이고, 조사와 어미는 형태부이다. “사람은 고기를 삶아서 먹는다”에서 ‘사람’, ‘고기’, ‘삶-’, ‘먹-’은 의미부이고, ‘-은’, ‘-를’, ‘-아서’, ‘-는다’는 형태부이다. 의미부에는 ‘역상’(뜻으로 읽기=훈독)이 적용되고, 형태부에는 ‘불역하’(음으로 읽기=음차)가 적용되었다. 역상불역하는 한국어 문장에서 의미를 나타내는 어간 즉 의미부는 한자의 뜻을 빌려 표기하고, 조사와 어미 등 문법 기능을 나타내는 형태부는 한자의 음을 빌려 표기하는 방법이다. 체언과 조사의 결합을 표기한 ‘法伊’(법-이), ‘法昫’(법-을), ‘紙作伯土那’(지작박사-나) 등은 음독법과 음가법이 적용된 차자표기이다. 용언 어간과 어미의 결합을 표기한 ‘用弥’(쓰-며) 등은 어간을 훈독한 것이어서 역상불역하에 해당한다. 이러한 예는 동대사본 화엄경 각필구결에 여러 예가 나타나 있으므로 740년경에 역상불역하 방법으로 어간과 어미의 결합을 표기했음을 알 수 있다.

어간 형태를 표기한 ‘當冥’(반드기), ‘飾冥’(빛기-), ‘令冥’(시기-), ‘无毗’(없-), ‘從毗’(좃-)에 쓰인 ‘冥’과 ‘毗’는 말

112) 윤선태, 2008, 「목간으로 본 한자문화의 수용과 변용」, 『신라문화』 32,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pp.189-192.

음(절)첨기자이다. 말음첨기자의 앞에 놓인 차자는 혼독되었고, 혼독 어간의 말음(절)을 표기한 말음첨기자는 음가자로 기능하였다. 이 점은 역상불역하의 원리와 상통한다. 여기서 말음첨기법과 역상불역하의 선후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역상불역하의 방법이 앞선 것이라고 본다면 말음첨기법은 어간을 보다 정교하게 표기하기 위해 역상불역하법을 더 발전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말음첨기법은 혼독법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전자가 후자를 앞서는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 양자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더 깊은 고찰이 필요하다.

말음첨기법과 역상불역하의 원리는 향찰 표기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신라 특유의 향가 문학의 문자화를 가능케 하였다. 향가의 노랫말을 문자로 표기할 수 있게 된 것은 역상불역하의 원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세기의 향가 연구자들이 향가를 해독해 낼 수 있었던 것은 역상불역하로 이루어진 향찰 표기의 원리를 간파했기 때문이다.

투고일: 2023.10.25.

심사 개시일: 2023.11.27.

심사 완료일: 2023.12.11.

- 권인한, 2008, 「신라 국호 이표기와 고대 한국어 음운현상의 전개」, 『구결연구』 20, 구결학회.
- 권인한, 2016, 「어휘」, 『신라의 언어와 문학』,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16권, 경상북도.
- 권인한, 2019, 「大谷大學藏『判比量論』角筆點의 언어문화사적 의의」, 『구결연구』 42, 구결학회.
- 권인한, 2020, 「함안 성산산성목간의 고유명사 표기자 분석」, 『목간과 문자』 25, 한국목간학회.
- 권인한, 2022, 「『妙法蓮華經釋文』으로 본 통일신라의 한자 문화」, 『영남학』 79,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 기경량, 2017, 「평양성 출토 고구려 각자 성석의 판독 및 위치 재검토」, 『사학연구』 127, 한국사학회.
- 김민수, 2002, 「차자표기 음독의 『隨書者之便』에 대하여」, 『구결연구』 9, 구결학회.
- 김영만, 2007, 「신라 지명 喙(喙)와 喙(탁)의 자음상 모순을 어떻게 볼 것인가」, 『지명학』 13, 한국지명학회.
- 김영석, 2017, 「원효 『판비량론』의 새로운 발굴-고토미술관 및 미즈이기념미술관 소장본을 중심으로」, 『불교학보』 81,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 김영옥, 2004, 「漢字·漢文의 한국적 수용」, 『구결연구』 13, 구결학회.
- 김영옥, 2007, 「고대 한국목간에 보이는 석독표기 : 향가 표기법의 기원을 찾아서」, 『구결연구』 19, 구결학회.
- 김영옥, 2008, 「한국어 표기의 기원과 전개 과정」, 『한국문화』 42,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김완진, 1980, 『향가 해독법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지오, 2023, 「향찰의 문자 표기론적 고찰」, 『훈민정음 창제 이전의 문자생활과 불교계』, 2023영축총림 통도사 추계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 남풍현, 1981, 「한자·한문의 수용과 차자표기법의 발달」, 『한국 고대문화와 인접 문화와의 관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남풍현, 1991, 「신라 화엄경사경조성기에 대한 어학적 고찰」, 『동양학』 21,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 남풍현, 2000, 『이두연구』, 태학사.
- 남풍현, 2001,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나타난 설총 관련 기사 분석」, 『어문연구』 29-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 남풍현, 2003, 「신라승 순경과 경흥의 법화경 주석서에 대하여」, 『구결연구』 10, 구결학회.
- 남풍현, 2013, 「東大寺 소장 신라화엄경 사경과 그 석독구결에 대하여」, 『구결연구』 30, 구결학회.
- 노중국, 2001, 「新羅時代의 尺과 干 - 技術職으로서의 尺의 성립과 地位 변화를 중심으로 -」, 『한국고대사연구』 23.
-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1976, 『한국불교찬술문헌총록』, 동국대학교 출판부.
- 박방룡, 2019, 「異次頓 舍人 묘와 사당에 대한 단상」, 『신라문화유산연구』 3, 신라문화유산연구원.
- 박방룡, 2020, 「이차돈 순교비의 諸檢討」, 『신라문화유산연구』 4, 신라문화유산연구원.
- 박용식, 2010, 「佐藤本 『화엄문의요결문답(華嚴文義要訣問答)』의 부호구결과 8세기 신라의 문법 형태」, 『구

- 결연구』 24, 구결학회.
- 박용진, 2019, 「고려 의천 찬 『신편제종교장총록』과 동아시아의 화엄 장소(章疏)」, 『신편제종교장총록 수록 문헌 총람』, 고려대장경연구소.
- 백두현, 2018, 「월성 해자 목간의 이두 자료」, 『목간과 문자』 20, 한국목간학회.
- 백두현, 2019, 「이두」, 『문자와 고대 한국 1』(한국목간학회 연구총서 03: 후보돈교수 정년기념 논총), 한국목간학회편, 주류성.
- 백두현, 2020, 「당대 자료로 본 훈독법의 생성 시기 고찰」, 『구결연구』 45, 구결학회.
- 서재극, 1995, 『증보 신라향가의 어휘연구』, 형설출판사.
- 小林芳規, 2006, 「日本 訓點の 一源流」, 『구결연구』 17, 구결학회.
- 小林芳規, 2012, 「일본 소재 8·9세기 花嚴經 및 그 주석서의 加點」, 『서지학보』 39, 한국서지학회.
- 小倉進平, 1929/1974, 『郷歌及び史讀の研究』, 京城帝國大學 法文學部/亞細亞文化社影印.
- 송기호, 2002, 「고대의 문자생활 -비교와 시기 구분」, 『강좌 한국고대사』(제5권 문자생활과 역사서의 편찬), 가락국 사적개발연구원.
- 신중진, 1998, 「말음첨기(末音添記)의 생성과 발달에 대하여-음절말 자음 첨기를 중심으로」, 『구결연구』 4, 구결학회.
- 안대현, 2013, 「佐藤本 『화엄문의요결문답(華嚴文義要決問答)』과 고대 한국어의 ‘ㄴ/矣」, 『구결연구』 31, 구결학회.
- 양주동, 1965/1983, 『증정 고가연구』, 일조각.
- 양희철, 1992, 「향가의 기록 연대와 작가명」, 『인문과학논집』 11, 청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여호규, 2011, 「고구려의 한자문화 수용과 변용」, 『동아시아의 문자교류와 소통』, 동북아역사재단.
- 유창균, 1994, 『郷歌批解』, 형설출판사.
- 윤선태, 2007, 「한국고대목간의 형태와 종류」, 『역사와 현실』 65, 한국역사연구회.
- 윤선태, 2008, 「목간으로 본 한자문화의 수용과 변용」, 『신라문화』 32,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 윤선태, 2011, 「백제와 신라의 한자·한문의 수용과 변용」, 『동아시아의 문자교류와 소통』, 동북아역사재단.
- 이경섭, 2004, 「함안 성산산성목간의 연구현황과 과제」, 『신라문화』 23,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 이경섭, 2013, 『신라 목간의 세계』(경인한국학연구총서110), 경인문화사.
- 이기문, 1972, 『국어사개설』, 탑출판사.
- 이문기, 2005, 「안압지 출토 목간으로 본 신라의 궁정 업무 -궁중 잡역의 수행과 궁정 경비 관련 목간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39, 한국고대사학회.
- 이승재, 2009, 「목간과 국어학」, 『고대의 목간, 그리고 산성』(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학술총서 제44호),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국립부여박물관.
- 이승재, 2010, 「재조본 『화엄경』에 附載된 권말 音義의 기원」, 『진단학보』 109, 진단학회.
- 이승재, 2013, 「신라목간과 백제목간의 표기법」, 『진단학보』 117, 진단학회.

- 이영호, 2010, 「신라의 신발견 문자 자료와 연구 동향」, 『한국고대사연구』 57, 한국고대사학회.
- 이용, 2023, 「차자표기에 나타나는 초성·종성 통용자」, 『구결연구』 50, 구결학회.
- 이용현, 2007a, 「문자 자료로 본 삼국시대 언어문자의 전개」, 『구결연구』 19, 구결학회.
- 이용현, 2007b, 「안압지와 東宮 庖典」, 『신라문물연구』 창간호, 국립경주박물관.
- 이우태, 2005, 「금석문을 통하여 본 한자의 도입과 사용 -신라 금석문의 ‘之’의 용례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38, 한국고대사학회.
- 이장희, 2018, 「신라어 표기 발전과 설총(薛聰)의 공헌」, 『설총과 문자 그리고 신라의 유학』, 삼성현역사문화관 학술총서 2.
- 이희준, 2016, 「제2편 통일신라-제5절 유학과 문학」, 『(개요)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문화편』,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편찬위원회 편,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 정광, 2003, 「한반도에서 한자의 수용과 차자표기의 변천」, 『구결연구』 11, 구결학회.
- 정재영, 2009, 「『화엄문의요결문답(華嚴文義要決問答)』에 대한 문헌학적 연구」, 『구결연구』 23, 구결학회.
- 정재영, 2014, 「신라 사경에 대한 연구」, 『구결연구』 33, 구결학회.
- 주보돈, 1999, 「신라의 달구별 천도 기도와 김씨 집단의 유래」, 『백산학보』 52, 백산학회.
- 주보돈, 2001, 「신라에서의 한문자 정착 과정과 불교 수용」, 『영남학』 1,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 주보돈, 2002a, 「6세기 신라 금석문과 그 특징」, 『신라문화제 학술발표논문집』 23,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 주보돈, 2002b, 「신라의 漢文字 정착 과정과 불교 수용」, 『금석문과 신라사』, 지식산업사.
- 주보돈, 2009, 「職名·官等·地名·人名을 통해 본 6세기 신라의 漢文字 정착」, 『한국 고대사 연구의 현단계』 (석문 이기동교수 정년기념논총), 논총간행위원회, 주류성.
- 최연식, 2011, 「신라 및 고려시대 화엄학 문헌의 성격과 내용」, 『불교학보』 60,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 하시모토 시게루(橋本 繁), 2007, 「雁鴨池 木簡 判讀文의 再檢討」, 『신라문물연구』 창간호, 국립경주박물관.
- 하시모토 시게루, 2020, 「월지(안압지) 출토 목간의 연구 동향 및 내용 검토」, 『한국고대사연구』 100, 한국고대사학회.
- 홍기문, 1956, 『향가해석』, 평양: 과학원(1990, 여강출판사, 김지용 해제 첨부 재출간).
- 홍기문, 1957, 『리두연구』, 과학원출판사.
- 황위주, 2016, 「한문의 수용과 창작 활동」, 『신라의 언어와 문학』(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연구총서 16), 경상북도.

〈Abstract〉

A study on the creation process and creators of Chinese character borrowing notation 譯上不譯下
translate leading kanj not translate trailing kanji

Paek, Doo-hyeon

Silla lagged behind Goguryeo and Baekje in the adoption and development of Chinese characters. However, Silla's adoption and development of Chinese characters led to the creation of a unique system of writing not found in Goguryeo and Baekje. This is the method known as Translate Leading Kanj not Translate Trailing Kanji(譯上不譯下), abbreviated term: TLK-nTLK), where the first character is read as hun(訓=meaning) and the second character is read as yin(音=sound). The phrase “譯上不譯下” first appeared in the article 「原宗興法猷闢滅身」 in Volume 4 of 『三國遺事』.

The Silla people borrowed the Chinese yin(音) and hun(訓) and used them in a way unique to Silla, adding creative variations to them. This process can be summarised as 〈learning⇒internalization⇒creative transformation〉. By accepting the yin(音) and hun(訓) of Chinese characters and internalizing them, they created the most suitable script for Silla expression. The learning, internalization, and creative transformation of Chinese characters must have had actors who performed them. There were dozens of Silla's annotator monks(圓測=Won-cheuk, 順璟=Sun-gyeong, etc.) who were active in the mid-seventh to eighth centuries. They annotated various Buddhist texts, such as the Hwaehum Sutra, by attaching sounds and meanings to them. This was done in order to understand the Korean text of the Buddhist scriptures in Silla. A large part of the annotations are explanations of Chinese characters, Chinese phrases, and Chinese sounds. These authors are called “yin yi monk”(音義家 學僧).

The 文尺, who wrote stele inscriptions and woodcuts to record events, may have played a role in the development of Idu-sentence(吏讀文). Seol-chong(薛聰) and Kang-su(強首) are representative of scholars who studied Confucian texts. Seol-chong may have contributed to the internalization of Confucianism and the development of Gugyeol(口訣) by translating the texts into Silla. Hwarang(花郎) would have made his own contribution by learning the scriptures and building or singing Hyangga(鄉歌). Hwarangdo education was a youth education system unique to Silla that did not exist in Baekje(百濟) and Goguryeo(高句麗), and Hyangga(鄉歌) was also unique to Silla. The TLK-nTLK notation method is also unique to Silla, so monks as leaders, Hwarangs as trainees, the Hyangga they sang, and the TLK-nTLK principle for notating Hyangga are closely related to each other, and served as the background for the

development of Chinese character borrowing method(漢字借字法).

▶ Key words: yeoksangbulyeokha(譯上不譯下), hunjueumjong(訓主音從), Hyangga(鄉歌), Idu(吏讀), muncheok(文尺), annotator monks(音義家 學僧).